

신평사 vs 캐피털 ‘보고서 베끼기’ 갈등

‘4신평사’ 앞두고 경쟁 심화... 비슷한 내용 보고서 붓물
캐피털 “업황악화 부추겨”... 신평사 “리스크 분석 결과”

국내 신용평가사와 캐피털(할부금융)사의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한 갈등이 급기야 신평사의 보고서 베끼기 논란으로 치닫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3대 신평사는 지난해 말부터 캐피털 업황과 관련한 보고서를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낸 캐피털 업계 분석 보고서는 9개에 달한다.

논란은 이들 보고서가 대동소이하다는 데 있다. 3대 신평사의 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보면 한국지엠이 지난해 권역별 딜러사 5곳과 계약을 해지한 것을 캐피털 업황의 부정적 근거로 든 경우는 여덟 차례 이상이다.

특히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7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지엠의 딜러사 계약 해지로 국내 캐피털사의 업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한기평을 비롯, 국내 신평사의 보고서들은 대부분 문구가 전혀 변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에 대해 캐피털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제4 신평사 허용을 앞두고 신평사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최근엔 보고서 서로 베끼기는 상례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신평사는 기업의 수수료 지급 여부에 따라 신용등급 평가를 미루는 ‘등급 장사’도 해왔다.

신평사의 부정적 평가와 달리 업계는 캐피털사의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2015년 말 여전사의 연체율은 2.31%, 고정이자채권비율은 2.37%로 분석했다. 이는 전년 말 대비 각각 0.51%포인트, 0.6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캐피털사의 회사채 발행도 잘 되고 있다”며 “신평사가 부정적 보고서를 낼 때마다 적극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캐피털 업계의 불만과 관련해 신평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내 신평사 관계자는 “리포트는 평범한 내용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짚은 것”이라며 “개별 회사를 언급했다기보다는 여전장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캐피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신평사 관계자는 “업계의 불만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캐피털업의 리스크를 분석하다 보니 비슷한 내용이 어느 정도 겹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고된 훈련, 꿀맛 휴식



서울 낮 기온이 34.2도, 수원이 34.7도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이 올해 최고 폭염에 빠진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소방학교에서 10471 신임 소방관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위). 아래 사진은 휴식시간 중 머리에 물을 적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 신임 소방관의 모습. 신임 소방관 184명은 무더위에도 20kg에 육박하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매일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받고 있으며, 내년 1월 일선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기상청은 4일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아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극심한 더위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태현 기자 holjik@

“갤노트7, 전작보다 많이 팔겠다”

3년 반 공들인 ‘홍채인식’ 생체보안 체계 한단계 진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인터뷰

“의미 있는 혁신 ‘갤럭시노트7, 전작보다 많이 팔겠다.”

고동진(사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새로운 갤럭시노트7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고 사장은 홍채인식 등 강화된 첨단 기능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갤럭시노트7으로 상반기 ‘갤럭시S7’의 여세를 하반기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8면
고 사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해머스타인볼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갤럭시노트7은 강화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탑재,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혁신을 줄 제품으로 전작보다 성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사업자, 유통거래선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준비를 잘해 놓은 만큼 갤럭시노트7을 통해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갤럭시 스마트폰 처음으로 홍채인식을 적용하고 방수·방진 기능을 탑재한 역대 최고 성능의 갤럭시노트7을 공개했다. 전 세계 이목은 홍채인식 기능에 집중됐다. 단 1초 만에 잠금화면을 해제하며 지문인식 대비 빠른 인식률로 호평받은 홍채인식 기능은 삼성전자가 3년 반 동안 공들인 결과물이다.

고 사장은 “홍채인식은 현 생체보안 시스템 중 가장 뛰어난 기술로, 인정을



쓰거나 렌즈를 깨도 문제가 없도록 했다”며 “차기작에서 더 많은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채인식은 기존 지문인식보다 한 단계 진보한 생체보안 체계다. 삼성전자는 생체보안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보안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보안 기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 사장은 그간 강조해왔던 소프트웨어적 진화도 이뤄졌다. 홍채인식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삼성패스’를 갤럭시노트7에 탑재한 것. 삼성패스는 홍채인식을 통해 공인인증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 보안카드 없이 전자금융 로그인 및 계좌이체가 가능한 기능이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전략 패블릿 갤럭시노트7과 중저가 라인업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고 사장은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A·J 시리즈’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미국) = 정유현 yhssoo@

국내 3대 신평사의 캐피털업 관련 보고서

- 주요 캐피털사 등급조정 결과 및 해석(한신평) → 2015년 11월 25일
- 할부리스업 건전성, 모니터링 요인과 과제(한기평) → 2015년 11월 11일
- 캐피털 리스크 TOP 10 선정 및 위기관리(나이스신평) → 2015년 12월 11일
- 자동차금융시장 대비, 경쟁사 간 우열은 어느 만큼 보인다(한신평) → 2016년 3월 2일
- 몸집 불린 금융계열사 vs. 고전 면치 못한 기업 계열사(한신평) → 2016년 4월 21일
- 2016.06 Quarterly Review-리스 할부금융(한신평) → 2016년 6월 3일
-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분석 및 핵심 리스크 3 선정(나이스신평) → 2016년 6월 22일
- 할부리스업 정기평가 결과 및 하반기 주요 모니터링 요소(한기평) → 2016년 7월 11일
- 자금시장의 불안, 캐피털사의 동맥경화를 초래하나?(나이스신평) → 2016년 7월 25일

현대상선, 유증 청약 전 ‘CB 발행’ 미고지 논란

주가급락에 증자참여 개인투자자 큰 손실 우려... 공매도 나선 外사기관은 이익

현대상선이 뒤늦게 2000억 원대 전 환사채(CB) 발행 결정을 공시해 주가 급락으로 최근 유증상자 일반공모 청약에 참가했던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 기업에 해당하는 현대상선의 유증상자에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CB 발행 사실까지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2일 장 마감 후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한국증권금융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전환가액은 유증상자 공모가액과 동일한 주당 9530 원이다.

현대상선 측은 채권단의 요청으로 2일 이사회에서 CB 발행 결정을 하고 시장에 처음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현대상선 민은행, 한국증권금융을 대상으로 3일 27.92% 폭락한 7640원에 장을 마친 것.

유증상자 신주가 5일 상장되는 데 따른 불량 부담이 커진 가운데 CB 발행

소식이 겹치자 주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현대상선에 대한 투자자들의 비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도 현대상선이 유증상자 청약을 받기 전에 투자자에게 CB 발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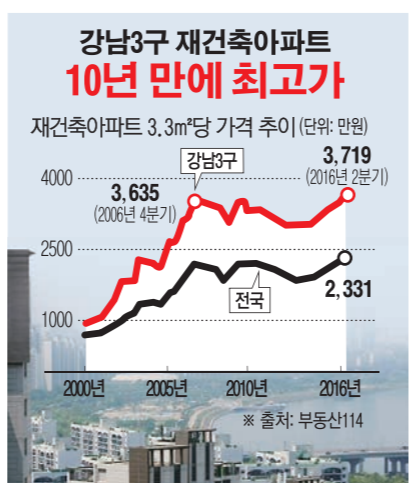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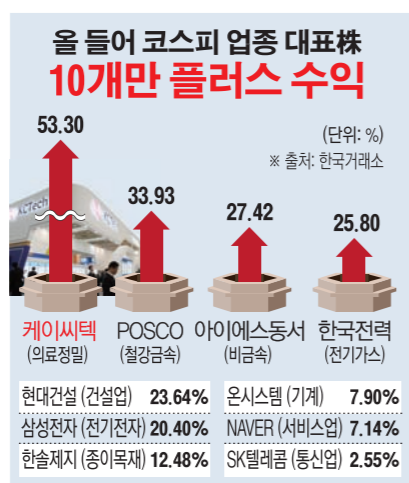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CB 발행 계획 발표를 안 한 채 유증상자에 개인투자자를 참여시킨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채권단의 장래 이익을 확보하고자 CB 발행을 번칙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선영 기자 moon@

데이터 뉴스 Data News

코스피 업종대표주 절반만 웃었다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8개 업종의 대표주 중 10개 종목만 플러스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스피 업종별 시가총액 1위 종목의 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 대비 평균 4.1%로 집계됐다. 이 기간 코스피는 1.7% 상승했다. 가장 많이 오른 대표주는 의료정밀업종의 케이씨테크로, 지난해 말 1만 1350원에서 전날 1만 7400원으로 53.3% 올랐다. 유혜은 기자 euna@



강남3구 재건축 3.3㎡당 3719만원

올해 상반기 강남 3구의 아파트 재건축단지 평균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 재건축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 재건축단지 평균 가격은 올해 6월 기준으로 3.3㎡당 3719만 원을 돌파했다. 이는 2006년 4분기에 기록한 최고가(3635만 원)를 10년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정경진 기자 jungkj@

테슬라 전기차 11월부터 한국서 살 수 있다

‘스타필드 하남’에 매장 오픈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 추진

글로벌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한국 시장 진출을 확정했다. 전지 및 판매망 마련과 함께 충전 인프라까지 직접 구축할 테슬라 국내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단숨에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자동차·유통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오는 11월께 국내 첫 매장 개장을 위해 신세계 실무자들과 국내 최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입점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께 경기 하남과 서울 강남의 테슬라 매장에서 전기차를 직접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오픈 시기는 정부 승인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정부 승인 절차가 늦어질 경우 하남 스타필드 매장에 전시장만 열 계획이다.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3일(미국 시간)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배포된 주주 대상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타이페이, 서울, 멕시코시티 등 연구 및 집진 도시를 중심으로 매장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서울 매장 오픈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테슬라업계에서는 강력한 경쟁자인 현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지엠·르노삼성차 전기차를 팔고 있지만, 테슬라처럼 마니아적 인기를 끄는 모델은 없는 상황이다. 안철우 기자 acw@

글로벌 이슈 ▶ 18-19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글로벌 트렌드 ▶ 20

스마트워크 시대

도전하는 여성 ▶ 13

뉴본스킨 대표 이미지

최대원 회장 ▶ 8 조양호 회장 ▶ 14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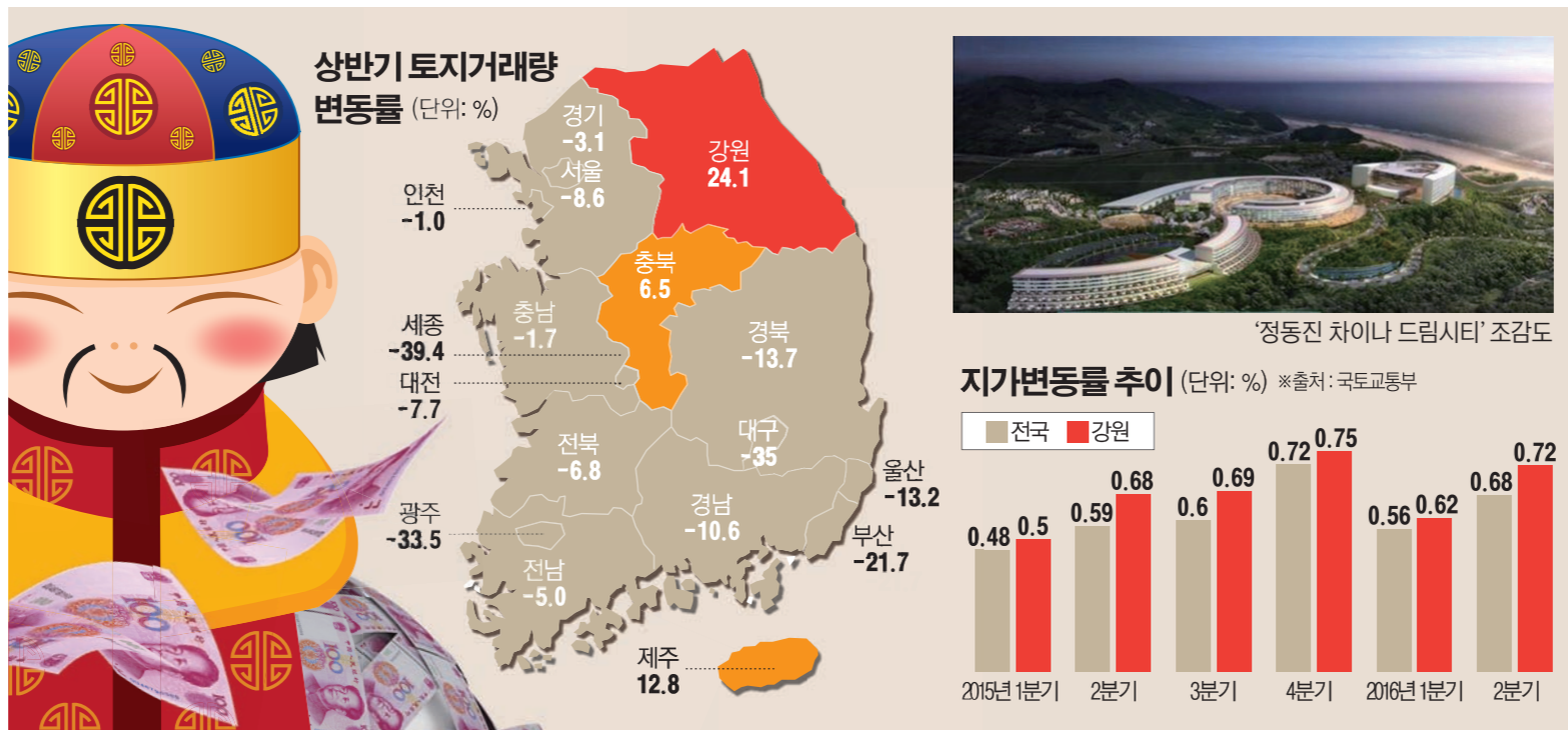
중기업 20여곳 “강원도에 투자 의향”... ‘제2의 제주도’ 부상

동해안지역 ‘차이나머니 밀물’

중 CEO클럽과 1조7000억 투자 협약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 본궤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도 뜨거워 관심 동계올림픽 특수·평창·강릉 문의 잇따라 각종 도시개발사업·교통망 개선 등 호재 투자가치 높아져 중·자본 유입 이어질 듯

강원도 동해안 일대가 제2의 제주도도 불리며 중국 자본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4일 강원도청에 따르면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비롯해 평창, 원주 등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의사를 밝힌 중국 자본 기업이 20여 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및 미국 계열 투자자도 일부 있지만 투자 관심을 보인 외국 기업 중 90%가 중국 자본으로 이들의 강원도 투자 관심이 뜨거워 상황이다. 특히 투자가 확정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곳은 중국계 투자기업인 삼차오홀딩스가 전부지만, 20개가 넘는 곳이 투자 유치에 의사를 타진한 만큼 업계에서는 제2의 제주도도 될 것이라 전망이다. 가장 먼저 강원도에 투자 깃발을 꽂은 삼차오홀딩스는 강원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의 시행을 맡았다. 이 기업은 이달 말 시공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중국계 투자기업인 삼차오홀딩스가 이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4873억 원으로, 50만여㎡에 호



텔·콘도(948실)와 힐링숲 등 복합관광리조트가 건설된다. 2014년 7월 강원도와 강릉시 등과 함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 2년 만에 본격 개발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지정된 지 3년이 되어 가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중국 자본 2곳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CEO클럽은 강원도와 향후 8년간 1조7000억 원 규모를 강원지역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강원도 일대에 투자 관심을 보이는 중화권 자본이 20개가 넘는 상황이고 강원도를 거치지 않고 지구에 직접 투자의향을 전달하는 중국 자본 기업도 상당하다”며 “동

해안 일대를 비롯해 동계올림픽 특수로 인해 평창 및 강릉 쪽 투자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강원도 동해안 일대가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바다 등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과 교통환경 접근성이 개선된 점을 꼽고 있다. 120km 구간의 원주-강릉 철도의 내년 12월 개통을 시작으로 동해안 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93.9km 구간의 동서고속철도 역시 확정됐으며 동충천-양양 간 고속도로는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다. 특히 양양국제공항에 중국 직항노선이 개설돼 관광객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외에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 등

에 몰리는 이유로 영구적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특성을 꼽았다. 푸평 삼차오홀딩스 사장은 “중국은 영구적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영구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집을 사면 유산처럼 대대로 물려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자본이 몰리며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제주도의 경우 중국 자본발(發) 개발이 난립하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축소했다. 반면 강원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추진, 최근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를 첫 번째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지구로 지정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경진 기자 jungkj@

강원 토지거래 증가율 상반기 24%... 전국 1위

속초 2배 이상...춘천·강릉도 늘어 명값 상승률도 전국 평균치 넘어서

강원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개발 호재에 투자가 몰리면서 올 상반기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거래량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투자 소외지역이나 다름없었던 강원도가 중국자본 등 각종 투자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올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강원도의 땅값은 이 기간 1.34% 오르며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인 1.25%를 넘어섰다. 전국 7번째 순위다. 눈에 띄는 점은 토지 거래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한 7만1763필지가 거래됐던 지난해 상반기보다 8.1% 줄었는데도 강원도의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제주(12.8%)와 충북(6.5%)이 뒤를 이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속초다. 속초는 상반기에만 모두 4591필지가 거래되며 2389필지가 거래됐던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춘천과 강릉에서도 1만 6475필지, 8139필지가 거래돼 각각 79%, 40% 확대됐다. 다만 이 기간 순수 토지 거래는 5% 수준에 그쳐 아직은 건축물 부속토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강원도의 땅 거래가 이처럼 늘어난 이유는 이 지역에 교통망, 주거 등 각종 호재가 몰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평창올림픽은 물론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원주-강릉 중앙선고속전철·원주-제천간 복선전철 등의 개통이 주요 개발 호재로 알려져 있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고, 원주에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함께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도 추진된다. 때문에 가치투자 여력이 커져 투자를 비롯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로 몰려 갔던 중국의 자본이 강원도에 손을 뻗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호재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개발이 지속되는 만큼 이 같은 자본 쏠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제주 호화리조트 싹쓸이 이어 수도권 아파트까지 군침... ‘땅값 폭등’ 부작용 우려도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보이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최근에도 램프제주개발이 제주 서귀포시에 분양한 ‘리조트월드 제주’를 중국 부호들이 싹쓸이 했다. 한 채당 가격이 180억 원에 이르는 초호화 휴양콘도미니엄이지만 중국에서 가까운 제주도에 북해리조트가 건설돼 중국인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중국 부호들의 이목을 오래전부터 사로잡

며 투자를 꾸준히 유인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 전체 땅의 1%를 외국인인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절반은 중국인 소유다. 중국인들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관심을 보이며 세력을 넓히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국인이 보유 중인 서울지역 토지는 올해 1분기 기준 3516필지(15만9375㎡)로 지난해 말 3192필지(15만3109㎡)를 보유했던 것을 감안하면 석 달 사이에 10%나 늘었다. 특히 2013년 말 (1537필지)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동안 2배 넘게 늘었다.

관련 업계에서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중국인의 특성상 조선족 명의 등으로 거래한 물량을 감안하면 중국인의 토지 보유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중국인의 토지 매입은 중국인 밀집지역은 물론이고 홍익대 주변, 서교동, 상수동, 연남동 등 사람이 몰리는 신흥 상권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일부 중국인들은 강남, 성수 등 부촌까지 진출해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이고 있다. 실제로 반포자이나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등

고가 아파트의 매입 문의도 적지 않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투자회사들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며 제주, 강원, 송도 등 국내 부동산 거점들을 선점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자본이 몰려올 경우의 부작용이다. 우리나라보다 중국 자본이 부동산에 먼저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혜택을 잃는 게 아니다. 호주, 홍콩 등은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인의 돈이 몰린 제주도의 경우 수년째 가장 높은 땅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수아의 배고픈 방학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방학
하지만 수아는 방학이 반갑지 않습니다
일하러 나간 엄마의 늦은 퇴근을 기다리며
스스로 식사를 챙겨야 하는 아홉살 수아
방학이면 하루종일 혼자인 수아는
매일 삼각김밥 하나로 저녁을 대신합니다

수아와 같은 아이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정기후원문의 | 1644-7911

본 캠페인은 방학 중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 아동들을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굿네이버스는 급식제공, 학습지원, 문화체험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들이 건강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아 후원하기

“대기업·부자 증세” 맞불 놓은 더민주...막오른 ‘세법전쟁’

세법개정안 여야 대결

또 다시 감세와 증세 논쟁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자 야당은 부자 증세를 담은 자체 안으로 맞불을 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다. 정부안의 핵심에는 신성장 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있다. 이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 개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 불어날 것인지, 부자증세로 서민의 세 부담을 줄일 것인지 치열한 대결이 시작됐다.

과세표준 ‘500억 초과’구간 신설

대기업 법인세율 22%→25% 상향

5억 이상 소득자 최대 41% 부과

“기업투자·소비 위축...경제 악영향”

정부·여당 ‘반대’ 입장 진통 예상

국민의당은 “조세감면 축소” 주장

◇정부, 법인세 실효세율 낮춰 경제 활성화 = 정부 세법 개정의 큰 방향은 △신성장산업 세제 지원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기업 구조조정 지원 △벤처·설비 투자 활성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자영업자·중소기업·농어민 지원 등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신성장산업 세제 지원이다. 미래형자동차·지능정보·차세대 SW 등 11대 신산업 분야에서 법인세의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에 또 기존의 최대 20%에서 30%까지 인상해주는 내용이다. 2010년 R&D 세제 지원이 시작된 이래 세액공제율이 최대 6%,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7%였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여기에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낮춰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실제 R&D 세액공제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단일 비과세·감면 조항 중에선 최대 규모다.

정부·야당 세법개정안 비교

|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정부안 | 기본입장 | “공평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더민주안 |
|---|-------|---|
| 22%(현행유지)/임금 인상분 가중치 50% 상향, 배당가 중치 20% 하향 | 법인세 | 세율 22% → 25% 인상(과표 500억 원 초과 구간 신설)/최저한세율 17% → 19% 인상(과표 5000억 원 초과 구간 신설)/기업소득원류세제 임금 인상분 가중치 50% 상향, 배당 제외 |
| 38%(1억5000만 원 초과 구간 현행 유지)/양도소득세를 내는 종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시총 20억~25억원 이상 → 시총 15억원 이상) | 소득세 | 세율 41% 적용(과표 5억 원 초과 구간 신설)/세액 공제, 감면 한도액 과표 기준의 7%로 억제(과표 1억5000만 원 이상 소득자 대상)/주식 양도세율 20% → 25% 인상(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 대상) |
| 과표구간별로 10~50% 유지(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30억원 등) | 상속증여세 | 10% → 3% 축소(상속 증여 신고세액 공제 한도)/기업상속공제 제도 대상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축소/연령별 증여 차등 과세 |
| 세법 개정안 미포함. 단, 더민주안에 국제형은 긍정적, 기재부는 부정적 | 부가가치세 | 부가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 |

반면 야당은 법인세 감세 이후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감세에 따른 투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창출 세제 지원 분야에선 582개 서비스업종 중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과 중소기업 고용증대를 위해 공제율을 인상토록 한 것이 골자다.

야당에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없이 단지 세금 몇 푼을 한시적으로 깎아준다고 신규채용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더민주, 대기업·부자 증세로 서민에 혜택 =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세법 개정안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것이 ‘공평과세’이고, 재정을 확충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논리다.

우선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하고, 과표 5000억 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2%포인트 인상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 41%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표 1억 5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선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7%)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이득과세와 관련한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세율도 25%로 5%포인트 인상하고, 1000만~2000만 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17%로 3%포인트 올렸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신용카드 회사로 하

여금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이런 증세는 기업의 투자와 국민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우선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 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인 뒤 부족할 경우 증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안과 야당안이 180도 부딪히는 내용이 많다”면서 “국회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보다 어떤 방법이 경제를 살릴 것인지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중 기자 zerg@

‘12 vs 11+3’ 여야 3당간 수싸움 본격화

국민의당 “더민주, 표되는 이야기만...”

2野도 입장차...정부원안 수정 불가피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20대 국회에서 여야 3당의 협상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그간 정부·여당을 상대로 호응을 맞췄던 두 야당은 세법 개정안부터 의견이 갈리면서 여야 3당 간에 복잡한 수 싸움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 가운데 정부 원안은 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세법안이 제출되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정부안을 비판하면서 그간 준비한 자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의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으로 불리는 법인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증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더민주의 자체안은 여당은 물론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에게도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에 대해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또 정부 원안에 전문가 회의, 당정협의를 통해 자녀 출산, 중소기업 고용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안 이외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도 더민주의 세법안에 “표 되는 이야기만 했다”며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민주의 세법안이 추진율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 침묵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초에 종합적인 자체 개편안을 발표해 세원을 책임 있게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기국회와 함께 시작되는 2016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3당 간의 세금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다. 주무대가 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여당은 위원장을 맡고 위원도 가장 많은 12명이지만, 더민주 11명에 국민의당 3명으로 여소야대 국면의 수적 열세를 극복해야 할 입장이 다.

윤필호 기자 beetlebun@

여야 기재위원 ‘세법’ 논리 들어보니

이현재 “법인세 인하, 경제활성화 위한 세계적 추세”

〈새누리당〉

박광온 “늘어나는 국가부채 해소 대안...인상해야”

〈더민주〉

김성식 “中복지로 가는 로드맵...세원 확보가 먼저”

〈국민의당〉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현행 22%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해소할 대안으로 법인세를 2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의 생각은 어떻게.



이현재 의원 새누리당 박광온 의원 더민주 김성식 의원 국민의당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 4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전 세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로 가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도 28%에서 27%로, 노무현 정부 때도 25%, 이명박 정부 때도 22%로 계속 내리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 (기업들이) 제품 값을 올린다든지 임금인상을 억제한다든지, 전가성향이 많다”면서 “법인세로 100%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찾을 때, 법인세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며 현행 법인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성장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하는 정부 안에 대해 “신산업을 지원하면 새로 공장을 짓는 등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민주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당겨’ 쓰지 말고 미리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조세 부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

다”며 “그런 것들이 정상화돼야 이 사회가 공동체로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시 사회통합과 양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정부안과 더민주안을 모두 비판하면서 “국민의당은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하고 중(中)복지로 가는 로드맵 속에서 필요한 세원을 책임있게 확보하는 정직한 세계개편안을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와 함께 근로자들의 면세점을 낮춰 세입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추진율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다”면서도 “더민주가 표되는 얘기는 하고 표 안 되는 얘기는 안 한다”고 꼬집었다.

이광호 기자 khlee@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자음단™으로 비할 데 없는 윤기가 찬란히 빛나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 생기가 없어 보인다면 피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트러진 피부 균형을 바로잡아 피부 본연의 윤기를 끌어올려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산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고른 다섯 가지 성분으로 완성한 자음단™이 피부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 피부 균형이 잡힌 건강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이제, 제대로 된 첫 단계 스킨케어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찬란한 윤기를 경험하세요**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https://www.facebook.com/sulwhasoo.kr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검찰개혁·사드대책·세월호특위 '3대 쟁점'

野 3당 "추경 연계" 공조... 속타는 정부

야 원내대표 8개 사향 합의

정부 "추경 통과 지연되면 경기 회복세 3분기에 꺾여 실업 늘고 전직훈련도 차질"

야 3당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대책 특위 구성,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등 3대 쟁점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경 속도론을 주장하는 정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대 쟁점을 포함해 총 8개 사항에 합의했다.

야 3당은 특히 3대 쟁점에 대해 추경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 주동민 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사드, 세월호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한 만큼 이후 상황들을 지켜보며 추경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야 3당의 움직임에 속이 타는 것은 연일 추경 속도론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다. 당초 정부는 추경이 야당에서 먼저 주장한 만큼 오는 12일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부터) 등 야 3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조방안 논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에서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추경 통과가 지연될 경우 경기 회복세가 3분기에 다시 꺾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사실 이날 여름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아 추경 통과를 호소했다. 그만큼 추경 통과가 급박하다고 본 것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3분기에 개소세 인하 종료, 자동차업계 파업, 김영란법 시행 등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 6월 경남, 전남, 전북,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자가 2만4000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실업이 더욱 확대되고 재취업·전직 훈련 등의 기회도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 추경이 9월 들어 통과되면 사업 추진이 늦어져 사실상 추경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트라, 32개국 투자환경 분석

한국 '빨리빨리 문화' 외국인투자 매력 정책투명도 10점 만점에 '3.25' 낙제

법인설립·건축허가 최단 수준 서류심사 시간 1시간에 불과 기업 실질세율 33.2% 낮은 편

| 주요국가 법인설립 소요시간 (단위: 일) | 일본 |
|------------------------|------|
| 미국 | 5.6 |
| 캐나다 | 1.5 |
| 프랑스 | 4.0 |
| 독일 | 10.5 |
| 호주 | 2.5 |
| 한국 | 4.0 |
| 일본 | 10.2 |
| 홍콩 | 1.5 |
| 중국 | 31.4 |
| 싱가포르 | 2.5 |
| 인도 | 29.0 |
| 인도네시아 | 47.8 |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낮은 세율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 투명도와 인구성장률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코트라와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가 한국과 주요 32개국의 투자환경을 분석한 '2016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 설립과 건축 인허가 소요시간은 세계 최단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법인 설립 소요시간은 4일로, 32개국 중 캐나다·홍콩(1.5일), 싱가포르·호주(2.5일)에 이어 5위로 평가됐다. 건축 인허가 소요시간은 싱가포르(26일) 다음으로 한국(28일)이 짧았다.

국경통관과 서류검토, 자국 내 이동 등이 포함된 한국의 수·출입 소요시간은 각각 16시간, 14시간으로 모두 상위권에 들었다. 특히 서류심사시간은 최단인 1시간에 불과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 셈이다.

기업 청산 시 채권회수율은 선진국 수준인 83.6%에 달하고, 기업의 총이익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실질세율

은 33.2%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점도 외국인 투자자를 끌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스위스 국제경제개발연구원(IMD)이 매긴 올해 우리나라의 정책 투명도는 10점 만점에 3.25점에 그치는 등 걸림돌도 적지 않았다.

선진국 중 한국보다 정책 투명도 점수가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3.10점) 한 곳뿐이었다.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브라질(1.09점), 멕시코(1.92점), 터키(2.29점), 러시아(2.82점)에 이어 하위 5위에 머물렀다.

지적재산권 보호 점수는 6.33점으로 개발도상국 중에선 상위권이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탈리아(6.03점), 스페인(6.05점), 폴란드(6.17점) 다음으로 낮았다.

또 현재 한국 시장의 질과 규모가 선진국 수준이지만 개발도상국과 비교하면 인구가 적은 편이고, 인구성장률이 낮다는 점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부채 19조' 석유공,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방만경영'

사옥 1개층 사장 사무실로 '쇄신 의지' 임원 사표 말뿐 무상 학자금 34%나 늘어

'공공기관 평가 낙제점(등급)'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한국석유공사의 방만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옥 한 층의 대부분을 사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림자 급여' 논란을 빚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도 도리어 늘었다. 지난 3월 뼈를 깎는 쇄신 의지를 다지며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냈지만 말뿐, 실제 퇴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지난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중 보육비 및 학자금 지원액은 2014년 2억9905만 원에서 지난해 3억6033만 원으로 20%(6128만 원)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정부가 대학생 자녀에 대해 무상 지원 대신 용자 형태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시했지만 정작 용자는 같은 기간 2억9399만 원(54명)에서 1억7307만 원(35명)으로 줄었다.

특히 방만경영의 대표 개선 대상으로 지적됐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규모도 2014년 2억1326만 원(138명)에서 지난해 3억

2725만 원(178명)으로 34%가량 늘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데다 부채만 19조 원에 달하자 석유공사는 올해 3월 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때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지고 공사 임원과 처·실장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7월 말 기준 임기만료로 상임이사(임원) 3명만 교체됐을 뿐 실제 퇴직한 임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원 연봉은 되레 올해 예산상 소폭 증가했다.

또 3월 말 2개 본부와 10개 부서를 없애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직원 수만 줄었을 뿐, 정작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해외사업 축소 등의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이 때문

에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자원개발 사업 추진을 따른 책임을 애꿎은 공기업 직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임원과 사장의 방만경영 행태도 개선되지 않았다. 조직 축소로 울산 사옥에서 총 3개 층이 비워져 빈 공간이 늘었지만 일부만 임대해 주고 한계 층은 회의실과 사정실, 또 다른 층은 이사들의 사무실로 꾸며져 불요불급한 자산 조정이라는 개혁안은 무색해졌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사옥일지라도 한 층의 대부분을 사장 집무실로 쓰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이는 아직도 일부 공공기관들의 개혁 의지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안전관리 부실 항공사 '운수권' 불이익

국제선 배분 때 감점

최근 항공기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안전관리가 부실한 항공사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편차를 현행 12점(최고 30점~최저 18점)에서 20점(최고 30점~최저 10점)으로 확대했다.

특히 증가 추세인 항공안전장애에 대응하고자 원래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와 함께 평가하던 항공안전장애 건수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배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항공안전장애와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를 함께 평가해 5점을 배정했지만, 앞으로는

항공안전장애 건수 5점·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 3점으로 분리한다.

아울러 현행 사고 건수 등 안전성에 대한 정량평가 외에 항공사의 안전관리 노력과 투자 정도를 평가하는 정성평가 지표(5점)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 평가 배점이 현행 30점에서 35점으로 커진다.

정성평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위원들이 한다. 공정성을 높이고자 항목별로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임의 배점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의 중요성을 고려해 인천공항 운항노선의 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의 환승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환승객 수송량(정량 4점)+환승객 성장률(정량 4점)+환승객 증대 노력(정성 2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김덕현 기자 dhkim0715@

'노후 경유차' 2020년부터 수도권 지역 운행 못한다

서울은 내년부터 전면 금지 인천·경기 단계적...43만대 대상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 전역과 경기도 내 서울 인접지역(17개 시)은 2018년, 그 외 수도권 대기관리지역은 2020년부터 금지된다. 약 43만 대가 대상이다.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는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를 시행하기로 하고 4일 협약을 맺었다.

운행제한이 적용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104만 대로 이 중 2.5톤 미만 경유차(47만 대)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14만 대) 등을 제외한 약 43만 대가 운행이 제한된다. 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 또는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 없이 수도권에 진입하면 적발 시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단속을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키로 했다. 생계형 차량의 범위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자인 차량이다. 저소득층의 노후 경유차는 저공해 조치 비용을 전액 정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식이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은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액의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제작사가 차량가액의 일부(30만~120만 원)를 할인해 주

도록 협의의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올해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박엘레 기자 ellee@

병원·학교·어린이집 직원 결핵검진 의무화

병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 감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과 같은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결핵 검진,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4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매년 1회,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결핵 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

복결핵 검진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실제로 최근 이대목동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병원 간호사의 결핵 확진이 잇따르면서 환자들의 결핵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 소아 혈액암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27·여)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전염성 결핵으로 지난 1월 확진돼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삼성병원 환자 86명과 동료 의료진 43명의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5월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린이집 원아 20명에게서 잠복결핵이 확인되기도 했다. 박엘레 기자 ellee@

전문대 입학정보 박람회



수시 1차 접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17학년도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막을 열었다. 3일 수험생들이 박람회에서 카지노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5일까지 열리며 전국 70여개 전문대학들이 참여한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글로벌 해운사 車운송료 담합 조사

공정위, 일·노르웨이·칠레 등 10개사

해운사 1곳 리니언시로 조사 착수

국내 차업체 피해 확인 후 제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해상운송료를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글로벌 해운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공정위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글로벌 해운사들이 자동차 운송량 감소가 예상되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운임 인하와 상호 입찰 경쟁을 자제하기로 하고 운임을 일정 수준에서 담합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등의 자동차 운송을 맡은 닛폰유선 등 일본 선사를 비롯해 노르웨이와 칠레 선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 해운사의 주력 사업은 트레일러나 일반 차량을 수송하는 화물선인 로로선을 이용해 자동차를 해상 운송하는 것이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70%

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10개 해운사가 올린 운임료 관련 매출은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중 한 해운사로부터 자진 신고(리니언시)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월에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같은 혐의로 8개 외국 해운선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총 4억700만 위안(723억8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이들 회사는 전화, 회의, 회식, 이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격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 사실을 최초로 공개하고 추동적으로 자료를 제공한 일본의 닛폰유선사는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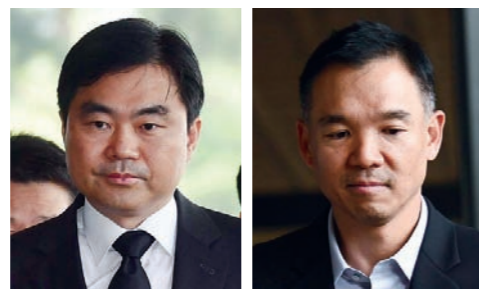
2014년에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가 5개 해운사에 약 20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호주에서도 승용차 해상운송과 관련해 담합 행위가 적발돼 제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규모가 확인되면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곽도훈 기자 sogood@**

진경준·김정주 '포괄적 뇌물죄' 성립 쟁점

16일 첫 재판...검찰 "공소시효 지났지만 이득과정 묶어 처벌 가능"

넥스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특혜성 주식투자를 통해 수백억 원을 챙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왼쪽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위원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16일 연다고 3일 밝혔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48·오른쪽) NXC 대표와 서용원(67) 한진 대표도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 위원 측에서 2005년 넥스 주식 수리 부분과 2006년 일본 상장 주식 매각은 별개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포괄적 뇌물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위원이 넥스 주식을 사들인 시기는 2005년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하지만 2006년 넥스 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으로 일본에 상장된 넥스 재팬 주식을 다시 사들였고, 지난해 매각해 120억 원대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수리죄로 묶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좌영길 기자 iy97@**

검찰은 2006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4년 12월부터 2006년까지 이뤄진 박연차 당시 태광실업 회장과 그의 금전관계를 하나의 '포괄적 뇌물'로 주장하며 정성문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좌영길 기자 iy97@**

반도체 IC칩 밀반출 무역업자 구속

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를 해외로 반출하던 무역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지식)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정보 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13억 원 상당의 반도체 IC칩을 홍콩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반도체 IC칩은 국가가 지정된 전략물자로, 당국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는 품목이다. 정 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80억 원 상당의 반도체 IC칩을 수입하면서 물량을 축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좌영길 기자 iy97@**

'성매매 입건' 부장판사 사표 수리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징계절차를 밟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부장판사에 대해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날 A부장판사는 논란이 일자 "이번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징계를 요청하면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가 이뤄지면 A부장판사는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좌영길 기자 iy9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주식 산 그룹 임원 9명 '미공개 정보 이용' 무혐의 결정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PB 추천종목 매수" 시세차익도 못 얻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실이 공개되기 전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았던 삼성그룹 임원 9명 전원에게 금융당국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혐의자들이 합병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증거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들의 이상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제일모직 주주 이익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해당 사건은 '중요 등급'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아닌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맡았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자들이 미리 합병 정보를 알고 주식을 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긴 시점을 법률상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으로 판단했다. 그러

나 문제가 된 임원들은 이 시점보다 앞서 주식을 샀다. 자본시장조사단 출석 조사에서 일부 임원은 "오래 거래한 증권사 PB가 추천한 종목을 매수했을 뿐 직접 제일모직 주식을 산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제일모직 주가가 합병 후 크게 떨어지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점 등도 무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각에선 그룹 고위 관계자들의 수상한 거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실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는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돼 불이익이 크다는 일반주주들의 항의가 빚발치기도 했다.

정다운 기자 gamia@

교통사고 난 차보다 비싼 오토바이 대차

법원 "보험사, 렌트비 전액 부담 책임없다"

교통사고 차주가 실제 사고 차량보다 비싼 오토바이를 대차했다면 보험사가 렌트비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민독 최석문 부장판사

는 D화재해상보험이 오토바이 임대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통상의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한 손해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보험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좋은 커피는 아이스로
즐길 때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여름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느린 카페 KANU

유통기한 42일이며 시음선착 유통보장

세상에서 가장 작은 커피

‘공인인증서’ 없이 모바일뱅킹 우리·하나銀 흥채인증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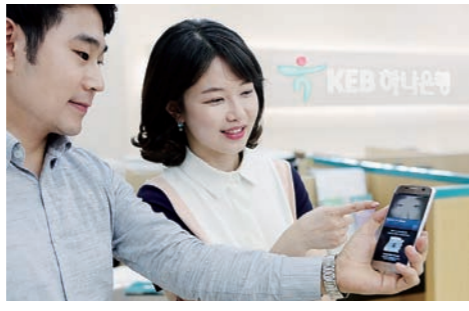
국내 금융권 최초... 이달 중순부터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고 있다지만, 이제는 지갑마저 필요 없는 세상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모바일뱅킹에 있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혀온 보안성이 대폭 강화된 바이오기술이 본격화되면서 전자금융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4일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이달 중순부터 스마트뱅킹에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생체인증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FIDO 기반의 흥채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내 금융권 최초다.

'FIDO(Fast IDentity Online)'란 생체인증을 접목한 사용자 인증방식으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흥채인증으로 완전 대체해 로그인, 자금이체, 상품신청 등 금융거래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바이오인증 기술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본인거부율과 타인수락률이 있다. 본인거부율은 본인을 타인으로 오인해 인증을 거부하는 것으로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타인수락률은 타인을 본인으로 오판할 경우 금융사고를 일으킨다. 본인거부율과 타인



KEB하나은행의 셀카뱅킹 서비스.

수락률이 낮을수록 정확도가 높다.

흥채인증은 본인거부율이 0.0001~0.1%, 타인수락률은 0.000083~0.0001%로 △지문 △손바닥 정맥 △손가락 정맥 △음성 △얼굴 등 현재 바이오인증 가운데 가장 정확한 기술이다. 지문인식의 경우 본인거부율은 0.1~0.5%, 타인수락률은 0.001~0.01%에 이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생체인증 정보가 사용자 스마트폰에만 저장하므로 생체정보 등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향후 보안성과 편의성이 모두 확보된 다양한 인증 수단을 금융 서비스로 적용해 차별화를 시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ikpark@**

수익률 손실 본 '신한·국민'... 공시 뺄튀기 논란 '기업'... 아직도 출시 못한 '하나'...

일임형 ISA 석달... 은행, 체면만 구겼다

우리은행 1개 포함 총 9개 상품 손실 증권사에 완패... 전문성 부족 도마위

국내 실적 1~2위를 다투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중 절반이 손실을 기록해 체면을 구겼다. 투자형 상품 운용에 관련한 은행의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에 공시에 따르면 22개의 손실 상품 중 9개가 은행권 상품들이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4개였고, 우리은행은 1개의 모델포트폴리오(MP·위험에 따른 자산배분 기준)가 손실이었다.

우선 신한은행은 총 7개 상품 중 '신한은행 일임형 ISA MP(고위험 A)'이 -1.46%를 기록하는 등 절반 이상이 손실을 봤다.

신한은행은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경기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했지만, 빠르게 시장이 안정된 것이 원인"이라며 "해당 상품들은 대부분 원금을 회복한 상태로 다음 주 있을 정기 공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총 10개의 상품 중 중위험 상품인 'KB국민 만능 ISA 중수익추구 S형(안정배분형)'을

일임형 ISA 손실 상품들 (최근 3개월 기준)

* 출시날짜: 2016년 4월 11일

* 출처: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 은행 | 회사명 | 투자성향 | 모델포트폴리오(MP) | 수익률(%) |
|----|------|------|------------------------------|--------|
| 은행 | 신한은행 | 고위험 | 신한은행 일임형 ISA MP(고위험 A) | -1.46 |
| 은행 | 우리은행 | 초고위험 | 우리 일임형 국내우량주 ISA (공격형) | -1.38 |
| 은행 | 신한은행 | 고위험 | 신한은행 일임형 ISA MP(고위험 P) | -0.85 |
| 은행 | 신한은행 | 중위험 | 신한은행 일임형 ISA MP(중위험 A) | -0.74 |
| 은행 | 신한은행 | 중위험 | 신한은행 일임형 ISA MP(중위험 P) | -0.46 |
| 은행 | 국민은행 | 중위험 | KB국민 만능 ISA 중수익추구 S형(안정배분형) | -0.38 |
| 은행 | 국민은행 | 고위험 | KB국민 만능 ISA 적극수익추구 S형(안정배분형) | -0.31 |
| 은행 | 국민은행 | 중위험 | KB국민 만능 ISA 중수익추구 A형(적극배분형) | -0.15 |
| 은행 | 국민은행 | 고위험 | KB국민 만능 ISA 적극수익추구 A형(적극배분형) | -0.03 |

비롯해 4개가 원금 이하로 떨어졌다.

국민은행도 브렉시트에 따른 변동성 예측에 실패한 것이 손실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공시된 3개 은행 중 총 10개 중 1개의 상품만 손실이 기록해 비교적 선방했다.

내로라하는 국내 대형은행들의 일임형 상품 실적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미흡한 상품 개발 준비와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은행들이 손실 이유로 내세운 브렉시트 변수는 다른 증권사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메리츠증권은 공시된 총 143개 일임형 ISA 수익률에서 4개 상품이 1~4위를 기록했다. 그 중 상위 3개 상품의 수익률은 3%가 넘었다.

일각에선 부실한 상품 설계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촉박한 일정에 맞추다보니 제대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월 14일 ISA 출시 한달 전인 2월 14일에 은행권의 투자일임업을 허가했다.

은행들은 서둘러 일임형 ISA 상품 개발에 착수했고 3개월 뒤인 4월에야 출시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은행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개발 기간을 대폭 축소하다보니

구성이나 설계, 자산운용 노하우 확보 등이 제대로 됐겠느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일임형 상품은 원금 손실까지 가능한 상품이라 대량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기업은행이 수익률 산출 오류로 재공시 불명예를 안았고, KEB하나은행은 전산 통합이후 이달 초 출시하기로 했지만 이달 10일 이후로 갑작스레 연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임형 노후자가 축적된 증권사와 비교해 출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인식은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당장 관련 검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수익률 저조에 따른 우려와는 달리, 장기 상품을 단기 수익률로만 비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분의 자산운용 전문가들은 5년만기 상품의 초기 3개월 수익률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지나치게 단기 수익률로만 비교하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투자상품 개발담당 관계자는 "출시 3개월 간 수익률로는 투자 상품의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며 "자칫 단기 수익률 위주로 상품을 운영하다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림 기자 hura@**

www.iytour.kr

맑고푸른 백두산 자락에 올 여름 완다 럭셔리 리조트로 초대합니다

- ★ 54홀 명품코스 ★
- ★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18홀 (백화코스) ★
- ★ 로버트 트렌트 존스 주니어가 디자인한 36홀 (송곡코스) ★
- ★ 최적의 날씨 여름 평균기온 17도~25도 ★
- ★ 지하 2700m에서 뿜어 올린 백두산 천연온천 ★

백두산 완다그룹 리조트

- ▶ 중국 제1의 부호 완다그룹이 200억 위안(약 3조 5천억원) 투자한 럭셔리 복합 리조트
- ▶ 백두산 서파, 북위 41도의 중국 길림성 백두산 내지에 위치
- ▶ 창바이산 국제공항에서 차로 15분, 백두산에서 20분거리
- ▶ 파크하얏트, 웨스틴, 웨라톤 등 3500개의 객실 운영
- ▶ 완다 타운 - 대극장, 워터파크, 쇼핑센터, 60여개의 식당가 운영

▶ 세라톤 호텔 전경

▶ 파크하얏트 호텔 전경

▶ 이비스 호텔 전경

상품구성 : 매일출발 (이비스호텔 기준)

| | | | |
|-----------------|------|------|------------|
| 인천 → 장춘 | 아시아나 | 3박4일 | ₩1,390,000 |
| | | 4박5일 | ₩1,650,000 |
| 인천 → 연태 → 장백산공항 | 동방항공 | 3박4일 | ₩1,590,000 |

* 상기 요금은 7~8월 성수기 기준 요금입니다.

포함 : 왕복항공료, 호텔(2인1실), 조식, 송영비, 그린피, 캐디피, 전동카
 불포함 : 중·석식, 캐디팁, 중국비자
 옵션 : 백두산서파관광(11만위), 천지장백산소풍원(100위안), 온천(160위안)

협력사

H HUMAN'S COMPANY ASIANA AIRLINES 中國東方航空 CHINA EASTERN

판매주관사

02-588-8820

롯데 수사 확대... 금융계열사도 물갈이되나

‘금고지기’ 의혹... 캐피탈 사장 사임 이어
檢 수사따라 카드·손보 사장 교체 가능성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가 롯데캐피탈 사장의 전격 교체로 이어지면서, 검찰 수사 강도와 결과에 따라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카드와 보험 등 다른 금융계열사 사장의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롯데캐피탈은 지난달 29일 롯데그룹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고바야시 마사모토 사장이 사임하고, 박송완 롯데인재개발원장 원장이 신입 대표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박송완 신입 사장은 롯데철성 총무 구매담당 상무(2006~11년), 롯데인재개발원장(2011~16년)을 지냈다.

롯데그룹은 “고바야시 사장이 일본롯데 최고재무책임자(CFO)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롯데캐피탈 사장직을 사임했다”라고 밝혔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고바야시 전 사장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그를 한-

일 롯데 간 자금흐름을 총괄하는 핵심 실세로 보고 있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 다른 금융 계열사 사장의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채정병 롯데카드 사장은 그룹의 회계·재무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본부 지원실장 출신이다. 채 사장은 2006~2014년 정책본부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재산 관리 등을 맡았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채 사장이 몸 담았던 정책본부가 비자금 조성을 총괄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있다. 채 사장이 계열사들의 재무를 사실상 총괄해왔던 만큼 비자금 조성 경위와 액수, 용처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 6월 채 사장을 소환 조사해, 신 회장의 해외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롯데손보 사장은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자금 거래 내역 등에 대해 조사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생보협회 전무는 금융위 출신, 손보협회 전무는 금감원 출신 내정... 금융 관련 협회 ‘낙하산 인사’ 논란 재점화

송재근 전 금융위원회 과장(감사담당관)이 생명보험협회 전무에 내정됐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송 전 과장은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생보협회 전무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업무와 일정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자격 심사를 실시한다.

송 전 과장은 1962년생으로 서천고, 단국대 독어독문학과 졸업했다. 1988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금융위 인사팀장, FIU 제도운영과장 등을 역임했다. 생보협회 전무의 거취가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손해보험협회 전무 인사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손보협회 전무는 금융감독원 서경환 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손보협회 전무직은 지난해 은행연합회, 여신

금융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가 부회장직을 없애면서 새로 생겼다. ‘관피아(관료+마피아)’나 ‘금피아(금융원+마피아)’ 출신들의 보은 인사를 제재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생·손보협회 전무직에 금융당국 출신이 내정되면서 이 같은 명분은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생보협회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은 협회장에 이어 전무직도 적합한 인물을 협회가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당한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자율경영권을 사수해 납득할 만한 인물을 전무로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희희 기자 jhsseo@



송재근 내정자 서경환 내정자

미래를 함께 하는 **신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신한에선 포인트도 자산이다

은행카드 증권 보험의 포인트를 함께 모아 더 크게 키우고 전국 포인트 제휴사에서 쉽게 쓰고, 펀드/보험가입 카드결제, 환전 등 금융거래까지 가능한 신한 FAN클럽 금융전문가 신한이 만들면 포인트도 자산이 됩니다

* 더 많은 거래로 신한 **Tops Club** 고객이 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신한 FAN 클럽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신한 **FAN** 클럽 이용 방법
설치: Google Play나 앱스토어에서 신한 FAN[앱카드] 설치 또는 업데이트
실행: 미인증 사용자는 신규가입, 기존 사용자는 상단 신한 FAN 클럽 메뉴 실행

*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신한카드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신한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6-2-634호(2016.06.22~2018.05.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60621-1214-001호(2016-06-21 현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6-7342호(2016년 6월30일~2017년 6월23일) 준법감시필 : 201606-36(2016.06.30)

‘갤노트7’ 극찬... 삼성, 하반기도 ‘파란불’

외신들 흥채인식 등 업그레이드 기능 뜨거운 반응
증권가 “IM 영업익 3분기 4조” 전망 잇단 상향

하반기 전략 제품 ‘갤럭시노트7’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하반기 실적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올 2분기 2년여 만에 4조 원대를 회복한 삼성전자 IT(IT·모바일) 부문은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작 대비 많이 팔 것”이라는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의 자신감을 반영하듯 새로운 갤럭시노트7에 대한 외신 반응도 호평 일색이다. 삼성전자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공개한 갤럭시노트7에 대해 외신들은 업그레이드된 기능 및 첨단 기술을 높게 평가했다. AP는 “더 강력해진 글래스 스크린, 내장메모리 등 갤럭시노트7의 업데이트된 기능들은 신제품의 가치를 높인다”고 호평했고 US투데이는 “S펜은 부드러운 터치로 얇거나 두꺼운 라인을 그릴 수 있도록 입력 감도가 높아져 미세한 표현까지 가능해졌다”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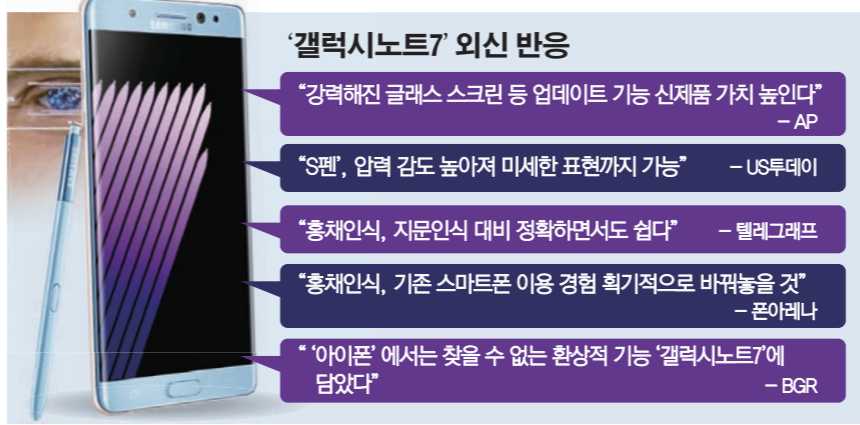
갤럭시 스마트폰에 첫 탑재된 흥채인식 기능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흥채인식은 지문인식 대비 정확하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몇 초만 스캐너에 눈을 고정하면 잠금화면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IT 매체 폰아레나는 “갤럭시노트7에 탑재된 흥채인식 기술은 기존 스마트폰 이용 경험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칭찬했고, BGR은 “애플이 소비자의 요구로 큰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그 이상의 특별한 기능은 담지 못한 반면, 삼성전자는 아이폰에서는 찾을 수 없는 환상적인 기능들을 갤럭시노트7에 담았다”고 극찬했다.

갤럭시노트7 발표 이후 증권업계도 삼성 스마트폰을 책임지는 IM부문의 실적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갤럭시S7’ 판매 효과 감소와 경쟁사 신제품 출시 및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3분기 3조 원 중반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던 증권사들은 4조 원 안팎의 실적을 전망하고 있다.

김동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오는 19일 글로벌 출시 예정인 갤럭시노트7은 9월 중순 아이폰7 출시 전까지 프리미엄 폰 대기 수요를 선점, 3분기 IM부문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0% 감소에 그친 3조90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성률 동부증권 연구원은 “평균 판매가격과 제품믹스 개선을 감안할 때 IM부문 영업이익은 3분기에도 4조 원 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영 기자 guty@



국내선 6일부터 예판... 출고가 98만원대

‘기어핏2’ 등 30만원 상당 혜택

하반기 최대작 ‘갤럭시노트7’이 발표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을 비롯한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이날 6일부터 18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출고가는 정점적으로 98만8900원(64GB 모델)로 정해졌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예약구매자들에게 스마트워치인 기어핏2와 액정파손 교체비용 50% 할인 등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기본 제공한다. 각 이동통신사들은 여기에 전용 케이스, 무선충전패드, 배터리팩, SD메모리카드, USB-C 케이블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준비하고, 구매자들의 선택을 통해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정식 출시일(19일)에 맞춰 발표하는 공시지원금 규모 역시 관심이 쏠린다. 공시지원금은 33만 원 한도 내에서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와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현재 갤럭시노트7의 공시지원금은 10만 원 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은 ‘T삼성카드2 v2’ 신용카드를 갤럭시노트7의 할부금을 결제하면, 최대 48만 원(2년 약정 기준)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T는 ‘슈퍼 할부카드’를 이용하면 2년 간 최대 36만 원까지 통신비 할인해주고, KT멤버십 포인트(할부원금 최대 5%)를 활용해 단말기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양창균 기자 yangck@

해외서 더 많이 번 SK그룹

상반기 매출 비중 51.8%... 최태원 회장 ‘부진부생’ 글로벌 전략 주요

SK그룹이 2013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 중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올렸다. 4일 SK그룹에 따르면 SK 관계사들은 지난 1-6월 총 54조733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중 수출 등 해외 매출액은 28조3652억 원(51.8%)이다.

SK그룹의 상반기 해외 매출액은 같은 기간 한국 전체 수출액인 283조 원의 10%에 해당한다. SK그룹의 수출 비중은 2013년 이후 4년 연속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3분기 이후 주력 수출기업인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의 실적 회복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SK그룹은 올 한 해 해외매출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D램 가격이 20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달부터 반등했으며, 하반기는 주요 스마트폰 고객들의 신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시점이다. SK이노베이션도 중국 내 화학·배터리 사업 등 해외매출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 예상되고 있다.

SK그룹 측은 해외매출 비중 확대가 최태원(사진) 회장의 글로벌 경영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최 회장은 10년 전부터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사업이 필수적이라면서 ‘부진부생(不進不生)으로 나가지 못하면 죽는다’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아울러 최 회장은 기술력만으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 굴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경영복귀 이후 중국 우한(武漢)의 중한석화, 우시(無錫)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스페인 렘플사 제철 공장 등 해외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글로벌 성장 의지를 직접 실천하기도 했다.

조남호 기자 sprdn@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3일(현지시간) 러시아공장을 방문해 이달 초부터 생산에 들어간 소형 SUV 크레타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피아트 車부품 인수 나선 까닭은

자동차 전장사업 확대 주력
예상가 3조4000억 역대 최대

삼성전자가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FCA)의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 인수를 추진 중이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피아트크라이슬러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 인수를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 마그네티 마렐리의 일부 또는 전부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예상가는 30억 달러(3조4000억 원) 수준으로, 그동안 삼성전자가 진행한

M&A(인수합병) 규모 중 최대다.

삼성전자는 특히 마그네티 마렐리의 차량 조명, 엔터테인먼트, 텔레매틱스(차량 무선인터넷 시스템)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그네티 마렐리는 피아트크라이슬러 그룹 계열사로 피아트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파워트레인과 전장품, 자동차 조명,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텔레매틱스 등이다. 미국 중국 브라질 등 전 세계에 연구개발센

터 12곳, 애플리케이션센터(응용연구소) 26곳을 두고 있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마그네티 마렐리는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100대 자동차 부품 업체 순위에서 중상위권으로 평가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2년부터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지주회사 엑소르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전자 조직에 ‘전장사업팀’을 신

설하며 자동차 전장사업을 공식화한 이후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글로벌 1위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 BYD(비야디)에 지분을 투자하며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자동차 전장부품 사업을 강화했다. 지분투자 규모는 5100억 원으로, 인수주제 상하이 삼성반도체는 BYD 전체 주식의 1.92%를 보유하며 BYD의 9대 주주가 됐다. 삼성전자는 인수 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영 기자 guty@

자영업자 반발 부딪힌 골프존 가맹사업

“영업권 보장 무사... 갑의 횡포” 주장에 “환경개선 차원” 설득 나서

업계 최초로 가맹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골프존이 최근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진땀을 흘리고 있다. 골프존은 가맹사업화가 기존 사업주의 영업환경 개선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를 ‘갑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커지고 있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말살하는 갑의 횡포 저지대회’를 개최했다. 핵심은 골프존 가맹사업화 추진과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반대 입장 표명이 될 전망이다. 총연대에는 골프존과 갈등을 키우고 있는 스크린골프장 자영업자들의 집단인 한국시물레이션골프문화협회가 포함되어 있다.

골프시물레이터와 콘텐츠 등을 서비스하는 골프존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주들의 영업환경 개선이 표면적인 이유다. 이달 1일 부터는 부산과 의정부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일부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골프존은 시범 운영 이후 3-4개월간 효과를 분석한 뒤 가맹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스크린골프장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막혀 차

질을 빚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골프존이 앞서 합의했던 상권보호 정책을 부인하고, 매장 내 소모품까지 골프존 제휴업체를 통해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대성 시물레이션골프문화협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골프존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합의된 영업권 보장 내용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갑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골프존은 이 같은 시물레이션골프문화협회의 주장이 일부 집행부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범 지역인 부산, 의정부의 가맹화 희망 수요가 약 80%에 육박한다는 점도 한 이유다. 다만, 이번 사태가 갑의 횡포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반대 자영업자들을 설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골프존 관계자는 “가맹화를 진행하면 4800여개인 골프존 취급점 수가 3600개점으로 축소, 회사 입장에서도 매출이 줄어 들 수 밖에 없다”면서 “사업주 영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캐리비안 베이, 안전한 물놀이 ‘라이프 펌프 캠페인’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고 있는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문화 전파에 나섰다. 캐리비안 베이는 제일기획과 함께 심폐소생술(CPR)을 재미있게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라이프 펌프 캠페인’을 3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진행한다. 캐리비안 베이에는 10개의 라이프 펌프를 야외 파도풀 주변에 설치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단체 방문이 많은 어린이 손님들 위해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평일에 한해 매일 4회씩 어린이 수상안전 교실도 운영한다. 사진제공 삼성물산

‘강철체력’ MK, 뽐뽐한 일정도 ‘이상無’

팔순 문턱서 일주일간 유럽출장
현장경영 철학... 직접 업무점검

올해 79세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강철 체력’이 세계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어느덧 팔순(八旬) 문턱에 다다른 정 회장은 지난 2일부터 1주일 동안 러시아와 슬로바키아, 체코에 있는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을 둘러보고 유럽 지역 판매 현황과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정 회장의 해외 출장은 지난해 3월 미국과 멕시코시장을 점검한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지난해부터 매년 3회 가량 소화했던 국의 일정을 1회로 줄였지만 그룹의 비전과 경영을 밝히는 중심에는 여전히 정 회장의 단단한 리더십이 자리잡고 있다.

정 회장은 3일부터 러시아공장과 슬로바키아공장, 체코공장을 차례로 방문한다. 아직까지 현지에서 소화하는 일정을 보면 젊은 사람들도 ‘학’ 소리가 날

정도다. 정 회장의 출장은 철저하게 업무 위주로 짜여진 시간으로 유명하다.

정 회장의 대외활동은 지금도 50대 못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정 회장의 체력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아진다. 정 회장은 고교생 시절 럭비 선수로 활동하는 등 평생에 걸쳐 강철 체력을 자랑해 왔다. 부친인 고(故) 정주영 회장도 84세이던 1998년 ‘소매 박람회’라는 세계의 이벤트를 직접 주도한 바 있다. 강철 체력이 대물림된 셈이다.

정 회장은 지금도 오전 6시반 양재동 본사로 출근해 젊은 직원들보다 업무를 일찍 시작한다. 또 수시로 헬기를 띄워 남양연구소를 오가며 직접 눈으로 연구 개발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정 회장의 이번 유럽시장 출장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올 상반기 블랙시트의 영향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럽시장을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는 그의 현장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안철우 기자 acw@

한진 3세경영 보폭 확대

조원태 ‘정석기업’·조현민 ‘한진관광’
앞차 계열사 임원진 선임 잇달아

한진그룹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들을 앞차 계열사 임원으로 앉히며 ‘3세 승계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막내 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각각 정석기업과 한진관광 임원으로 승진했다. 대신 두 사람 모두 토포스여행정보 임원은 내려갔다.

4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정석기업 이사로, 조 전무는 한진관광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정석기업 이사 선임은 자회사에 대한 책임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조 전무의 한진관광 대표 선임의 경우 한진관광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한 회사 수익 제고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조 부사장이 토포스여행정보 대표이사직을, 조 전무는 이사직을 사임했다.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진제공 한진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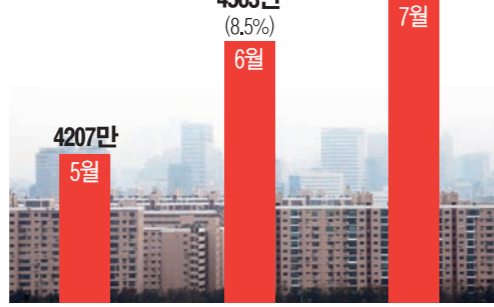
조 부사장은 최근 2년간 대한항공을 포함해 5개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특히 지난 3월에는 3곳의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로 동시에 선임됐다. 우선 대한항공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됐으며, 같은날 항공기 지상 조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국공항 대표이사, 토포스여행정보 대표이사 자리에도 올랐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압구정 재건축 '불안한 질주'

신현대아파트' 두 달 새 10%나 경증
규제 강화에 강남 재건축 열기 '주춤'
정비계획 내용·기부채납 부지 등 변수
단기 급등... 가격조정 피하기 힘들 듯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84㎡의 3.3㎡당 평균가격
(단위: 원, 괄호는 한달동일 증가율)
*출처: 부동산 114



강남 재건축 시장이 연이은 통제로 소강상태에 들어간 사이 전통적인 부촌 1번지인 압구정동의 나홀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개포에서 압구정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향후 발표될 서울시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는 3.3㎡당 평균 가격이 4207만 원에서 4563만 원으로 8.5% 뛰며 이어 7월 다시 1.6% 상승하며 4638만 원까지 올라섰다. 두 달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3.3㎡당 평균 가격이 4709만 원에서 5049만 원으로 7% 넘게 치솟은 구현대4차는 7월에 5332만 원으로 5.6%가 다시 뛰었다. 현대13차의 전용 84㎡는 최근 17억4000만 원대에 거래됐다. 이 단지의 같은 면적은 지난 5월 15억 5000만 원 선에 거래됐다. 두 달 사이 2억 원이 치솟았다.

압구정지구 아파트의 이 같은 가격 급등이

시작된 건 이달 '압구정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발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압구정동 일대 24개 단지를 6개 권역으로 묶어 재건축하는 내용이 담긴 계획안으로, 안전진단 통과 2년여 만에 담보 상태에 놓였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격을 밀어올렸다. 서울시가 해당 발표를 이달에서 오는 10월 이후로 미뤘는데도 당분간은 이 같은 기대감이 계속 반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강남 재건축 시장은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발목이 잡혔다. 고분양가 통제의 타깃이 됐던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정부가 내놓은 기준에 맞춰 분양가를 낮췄고,

향후 분양될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제동이 걸렸다. 브레이크가 계속되면서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의 오름폭도 3주 연속 줄어들었다.

압구정동 A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올해 강남 재건축이 각광을 받으면서 압구정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지만 이 지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발표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가격 급등하기 시작했다"며 "개포동 일대 재건축이 부촌의 역사를 다시 썼다고 할 만큼 열기를 보이다가 잠잠해졌지만 사실 이곳도 정비계획 내용이 향후 재건축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압구정동 주민들은 현재 이 지역 재건축에서 45층 이상 초고층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업계는 서울시가 층수 제한 35층·용적률 300%·기부채납 15% 수준으로 준비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돼 온 기부채납 부지 역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강남 재건축의 분위기가 한 풀 꺾인 상황에서 압구정지구의 재건축이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재건축 단계나 속도가 비슷한 강동구 둔촌지구나 고덕지구로 관심이 다시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일부 압구정지구 아파트는 가격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건설업계 '사회공헌' 약속 공수표?

지난해 입찰담합 관련 특별 사면받으며 2000억 규모 기금 마련 밝혀
현재 모금액 50억 불과... 정부 협조 요청에 "부담스럽다" 말바꾸기

지난해 건설업계가 약속한 사회공헌기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건설사들을 독려하고 나서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이 당초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3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의 모 호텔에서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사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지난해 건설업계가 약속한 사회공헌기금 모금이 미흡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약속이행을 독려했다고 알려졌다.

건설업계의 사회공헌기금 출처는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사면을 실시했는데 당시 건설사들은 담합 등으로 관공공사입찰 제한 해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건설업계는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약속했고 이어 지난해 11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열린 총회에서는 초대 재단 이사장으로 이상대 전 삼성물산 부회장이 선출됐고 주요 건설사 대표와 정부·학계 인사 등이 이사진을 맡았다.

재단은 사회공헌기금이 조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년여가 흐른 지금 모인 기금은 50여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로 인한 논란이 제기됐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건설사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정부까지 나서서 압박하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확히 2000억 원이라는 액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사



건설업계가 사회공헌기금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8월 열린 건설업계 '공정경쟁과 자정실천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공정경쟁과 준법경영 실천을 다짐하며 대형건설사 대표들이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건설협회

면받은 70여 개 건설사에서 많은 기금을 낼 만한 곳은 10여 개사에 불과하지 않느냐"면서 "지난해 건설사별로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낸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공헌기금까지 내라고 압박하다 보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사면 전과 후가 다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사면 당시에는 뭐든지 할 것처럼 해놓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건설업계의 신뢰성만 떨어트릴 뿐"이라며 "최근 실적도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약속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건설업계가 한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재단의 기금 마련은 업계가 약속한 것이므로 주무부처로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면서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과 약속한 것이니 만큼 성의라도 보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수도권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대전'

하반기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 '그라시움' 등 28곳 4만2035가구

하반기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중 1000가구를 넘는 대단지가 2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12월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중 단지 규모가 1000가구 이상인 대단지는 28곳, 총 4만2035가구를 조사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전체 분양물량은 146곳 9만7997가구다.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3곳이 이 같은 대단지로 조성된다.

대우건설·현대건설·SK건설은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그라시움을 9월 분양한다. 4932가구 중 전용면적 59-127㎡ 202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중랑구 면목3구역을 재건축하는 사가정 아이파크를 11월 분양한다. 전용 59-160㎡ 1505가구 중 104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7호선 사

가정역이 걸어서 10분 거리로 강남 접근성이 좋다. 인천에서는 2곳, 경기권에서는 23곳에서 대단지 물량이 쏟아진다.

반도건설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 A-79블록에 짓는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02단지를 이달 분양한다. 77-96㎡ 1515가구로 10.01단지과 함께 총 2756가구의 대단지를 이룬다.

GS건설은 안산시 사동 1639 사동90블록에 짓는 그랑시티자이 1차를 10월에 분양한다. 총 6600가구 중 1차 물량은 59-140㎡ 3728가구다.

금강주택은 남양주시 지금지구 B7블록에 1304가구 규모의 다산신도시 금강펜테리움을 10월에 분양하고,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은 경기 수원시 매폐4도시개발구역에서 매폐 아이파크 롯데캐슬을 같은 달 분양할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주택경기 전망치 올랐지만... "기저효과일 뿐"

8월 14.7P 오른 76.4 "회복신호 아냐"
7월 실적지도 86.5로 두달 연속 하락

주택업계는 주택사업 경기의 위축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의 8월 HBSI(주택사업 경기실사지수) 전망값이 76.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전망(61.7)보다 14.7포인트(1) 상승한 수준이다. 하지만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회복신호기보다는 지난달 영국의 브렉시트, 중도금 대출규제 강화 등에 따른 일시적인 주택사업 체감경기의 급격한 위축 결과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HBSI 실적은 5월 100을 기록한 후 6월 89.2, 7월 86.5로 2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의 조정국면은 6-7월 비수기를 거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월 HBSI 실적은 86.5를 기록하며 당초 7월 전망치(61.7) 대비 24.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6월말 브렉시트 등의 영향이 주택사업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쳐 주택사업 체감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사업자들이 단기 예상했지만 주택사업 경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수값이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어 주택사업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보다 많은 가운데 주택사업 경기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많은 상태다.

김택재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시장 호조는 서울, 제주, 세종을 제외하고 분양단지별 국지성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사업 입지, 사업성(분양성), 지역 및 인근 수요, 기존 공급물량, 분양가 및 매매·전세가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블랙박스
아무거나
달지 마세요!

브랜드를 보고 선택 하셔야죠!

블랙박스는 역시 -

아이나비

강소라가 강력 추천하는
아이나비 프리미엄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950 View



Handwritten signature and text: O HBSI, 14.7P 오른 76.4

세븐에이트

동성제약



어두워지지 않는 새치 염색 - 세븐에이트

언제나 밝은 느낌 - 세븐에이트 무향료 칼라크림 **여성용**

새치와 검은 모발의 편차가 적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두워지지 않아 처음 색상 그대로 밝고 빛나는 컬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븐에이트 전속모델 | 탈린트 차 화 연



● 4.5호 (금빛 갈색) ● 4.63호 (주황빛 밝은 갈색) ● 5.4호 (진한 다홍빛 갈색)

| 소비자상담실 | 080-547-3571 | 세븐에이트는 가까운 약국,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해킹 한번에... 12만 비트코인 사라졌다

〈시가 7200만 달러〉

세계 최대 거래소 홍콩 비트피넥스 고객 계좌서 유통량의 0.75% 도난 가격 23%↓... 480달러까지 떨어져 원인 파악 못해... 거래-인출 중단 블록체인 기술 안전성 의구심 커져



홍콩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비트코인 도난 사고가 벌어지면서 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홍콩 소재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피넥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계좌에서 11만9756비트코인이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도난당한 비트코인은 시가로 7200만 달러(약 805억 원)에 달하며 현재 유통 중인 전체 비트코인의 약 0.75%에 해당한다.

비트피넥스는 전날 “해킹으로 거래와 예금 인출 등을 모두 중단했다”며 “홍콩 경찰과 협력해 도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직은 외부 침입인지 내부자 소행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더리움 등 다른 디지털 통화도 거래를 중단시켰지만 피해는 비트코인에 국한됐다”고 덧붙였다.

달라화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거래소 중 세계 최대 규모인 비트피넥스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안성이 높다고 평가받은 블록체인의 취약점이 다시 드러나게 됐다.

앞서 지난 2014년 2월,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일본 도쿄 소재 마운트고크스가 해킹을 당하고 나서 파산한 사건이 일어나자 비트코인 가격은 그 달에만 30% 폭락했다. 이때 피해 규모는 5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에도 도난 사실이 처음 밝혀진 2일 비트코인 가격이 23% 이상 폭락해 480달러까지 떨어지며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은 낙폭을 다소 회복해 56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프레드 여삼 공동설립자는 “규모가 큰 해킹”이라며 “비트피넥스는 대형 거래소이며 도난 사건은 단기적으로 중대한 이벤트다. 다만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이런 종류의 사건 뒤에 가격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비트피넥스는 지난해 비트코인과 공동으로 인증 키를 여러 명에게 분산시키는 ‘멀티 시그니처 월렛(multi signature wallets)’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블록체인 (Blockchain)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쓰이는 데이터 관리 기술이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결제 네트워크와 달리 사용자가 송금 등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담긴 블록이 생성된다. 이어 이 블록이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돼 승인을 받고 나서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되면 결제가 완료되는 형태다. 여러 이용자가 거래 정보를 공동으로 인증하고 보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안성과 투명성이 높고 거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보안에 대한 우려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번 사고로 그간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됐다. 비트피넥스와 비트코인 모두 자체 조사 결과 자신들의 서버가 침입당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스템 자체에 허점이 노출되면서 비트코인의 신뢰성에 금이 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인출의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크며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트럼프 넥타이 ‘메이드 인 차이나’랍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현지시간)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넥타이 제조업체 노티타이를 방문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브랜드가 만든 중국산 넥타이(오른손을 들어보이며 비아냥거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노티타이는 전 세계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클린턴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는 사람이 중국에 아웃상을 주고 있다며 트럼프를 비판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유세 내내 중국과 멕시코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해왔다. **덴버/로이터연합뉴스**

KFC·맥도날드, 中사업 불날 갔나

中 패스트푸드 세력 확장 영향

입맛 변하고 건강음식 관심 커져

얌브랜즈 점유율 13.8%로 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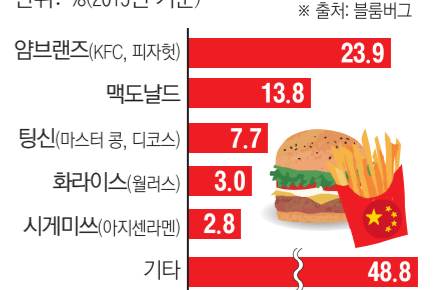
“지금 매각... 5년후 더 떨어질 것”

KFC, 피자헛 등의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얌브랜즈와 맥도날드의 중국시장 전성기가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랫동안 양사는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왔다. 그러나 현지에서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중국식 패스트푸드업체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등 중국인의 입맛이 변하면서 미국 패스트푸드 인기가 식어가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양사 모두 중국사업을 분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통신은 강조했다. 얌브랜즈는 중국 파트너와 투자자들에게 중국법인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법인 가치나 매각 조건을 놓고 이견이 생겨 현재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얌브랜즈는 중국법인을 분사해 올해 안에 상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중국 직영점 프랜차이즈로 전환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화공집단지공사(첸자이나)와 뉴호프그룹, 사모펀드 KKR 등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규모는

중국 패스트푸드업체 시장 점유율



20억 달러(약 2조236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맥도날드와 얌브랜즈는 지난해 중국 시장 점유율이 합쳐서 38%에 달했다. 그러나 양사 모두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중국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인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얌브랜즈는 점유율이 지난해 2012년에 40%에 달했으나 지난해 23.9%로 축소됐다. 맥도날드는 2013년의 16.5%에서 지난해 13.8%로 떨어졌다. 맥도날드의 중국 내 매장 수는 약 2200개다.

중국정법대학의 리웨이화 경영학 교수는 “5년 전에 양사가 중국사업 매각을 추진했다면 더 많은 바이어 관심을 보였을 것이지만 당시 사업이 번창해 이들이 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들의 사업은 시들고 있어 지금 매각하지 않으면 5년 후에는 그 가치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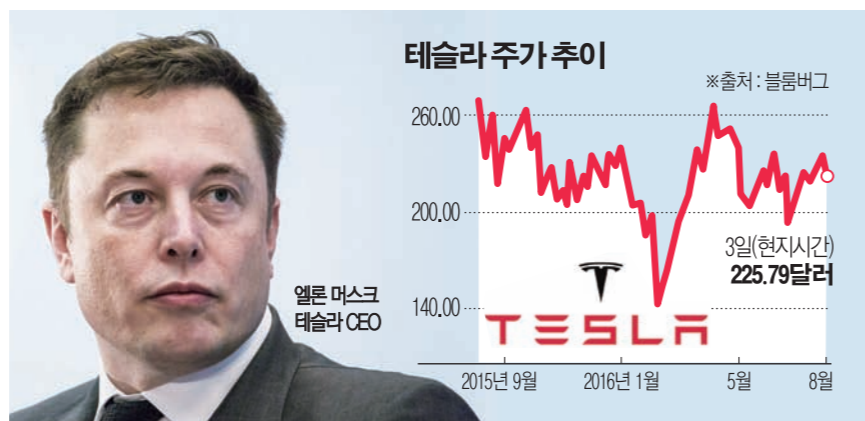
테슬라, 판매 늘었는데 13분기 연속 적자... 왜?

2분기 예상 개고 3억 달러 순손실

‘모델3’ 마무리 연구개발비 증가

차량 고객 인도 목표 달성 못해

주가도 정규거래서 0.62% 하락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13개 분기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테슬라가 3일(현지시간) 2분기 순손실이 2억9320만 달러(약 3276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회사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늘어 나게 됐다.

영업손실은 1.06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주당 0.48달러는 물론 시장 전망치(주당 0.52달러)를 크게 웃도는 손실을 기록했다.

이로써 회사는 13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매출은 33% 증가

한 12억7000만 달러였다. 2분기 전기자동차 대수는 1만4402대로, 목표치인 1만 7000대를 밑돌았다.

회사는 대규모 적자의 원인으로 중저가 보급형 전기차 ‘모델3’ 엔지니어링 마무리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를 지목했다.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테슬라가 이번에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날 2분기 실적 발표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야후파이낸스는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대규모 적자에도 회사 주가는 정규 거래에서 0.62% 하락하는 데 그쳤다. 시간의 거래 하락폭도 0.31%로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이날 주가 급락은 피했다 하더라도 머스크 CEO의 경영능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테슬라는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당장 전날 발표한 테슬라와 태양광업체 솔라시티 인수·합병(M&A)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좀처럼 누그러

들지 않고 있다.

머스크는 솔라시티 회장도 겸하고 있다. 전날 테슬라는 26억 달러에 솔라시티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테슬라는 양사 합병 시너지가 1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당수의 애널리스트는 합병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회사의 사업 성격이 워낙 다른데다 솔라시티와 테슬라 모두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 자율주행기술인 ‘오토파일럿’의 안전성 논란도 골칫거리다. 지난 5월 플로리다 주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모드였던 ‘모델S’의 운전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지난달 초 폴란드 베니아 주에서 발생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모델X’가 오토파일럿 모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안전성 우려가 고조됐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이지만 이미 출하된 약 7만대의 테슬라 차량에 해당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시장에 던져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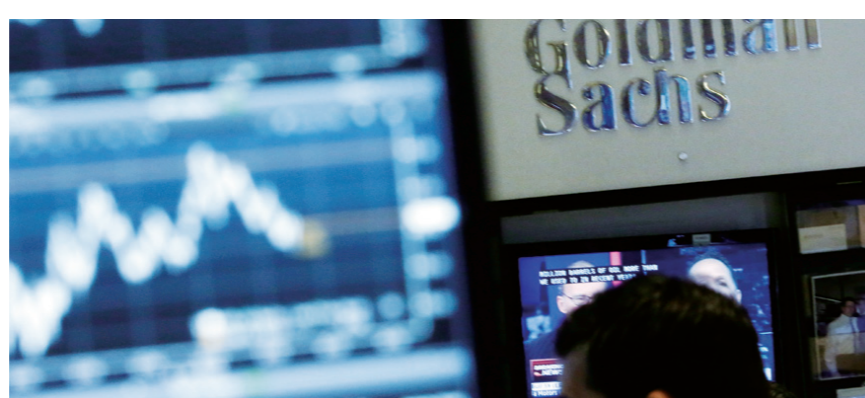
골드만삭스 말레이 비리 연루 이어 연준비밀 유출

뉴욕 연은 직원 영입후 정보 캐내

美 연준 3630만 달러 벌금 부과

국영투자기업 1MDB 비리 혐의

당국 소환장... 현지 법인 역할 조사



골드만삭스가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비밀 유출 혐의로 400억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은행은 최근 말레이시아 국영투자기업 1MDB 비리 연루 혐의까지 받고 있다. **뉴욕 AP/뉴시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말레이시아 국영투자기업 1MDB 비리 연루 혐의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비밀 유출 혐의로 벌금까지 물게됐다.

연준은 3일(현지시간) 비밀정보 유출 혐의로 골드만삭스에 3630만 달러(약 40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내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미국 뉴욕 주 금융당국에도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

사건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골드만삭스의 투자업무 관리였던 조지프 지암피에트로로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연준의 비밀정보를 빼내 고객들에게 알렸다.

그는 미국연방예금보통공사(FDIC)의장이었던 윌라 베어 밑에서 자문단 역할을 했던 정부 인사였으나 2011년 골드만삭스로 자리를 옮겼다.

지암피에트로로는 2014년 뉴욕 연방준

비은행(연은)에서 7년간 근무했던 로히트 반살을 골드만삭스로 영입했다. 반살도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수십 개의 연준 문서를 빼돌려 지암피에트로와 공유했다.

반살은 당시 뉴욕 연은 직원이자 친구였던 제이슨 그로스로부터 골드만삭스 고객인 은행과 관련해 약 20개 사안에 대한 35개 문건을 입수했다고 통신은 설

명했다.

지암피에트로로는 지난 2014년 10월 골드만삭스에서 해고됐다. 연준은 그에게 33만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은 행업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살도 이미 해고됐으며 지난해 11월 연준으로부터 은행업계에서 영구 퇴출 징계를 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증권계에서 영구 퇴출시켰다. 그로스도 파면 조치됐다.

이와 별개로 골드만삭스는 현재 1MDB 비리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웰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법무부와 SEC 및 뉴욕 주 정부가 1MDB 비리 의혹 조사에 필요한 문서를 요구하고자 골드만삭스에 소환장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1MDB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정부 관리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2013년 1MDB의 채권발행 주관사로 참여했던 골드만삭스도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미 당국은 골드만삭스가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골드만삭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英 중앙은행 7년만에 금리인하 가능성

오늘 브렉시트 이후 두번째 회의

이코노미스트 대부분 0.25% 예상

자산 매입 3750억 파운드서 확대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4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후 두 번째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7년 만에 금리인하를 결정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영란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가 지난 번 정책회의에서 8월 경기부양책 발표를 시사한 터여서 금리인하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영란은행은 8대 1로 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사록에 따르면 멤버 대다수가 8월 금융 완화를 예상했다.

이번 블룸버그 조사에 참여한 47명의 이코노미스트 중 41명 금리 인하를 예상한 사람은 45명. 이들 대부분은 기준금리가 현재 0.5%에서 0.25%로 0.2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란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는 7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영란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이던 2009년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 **블룸버그**

3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로 인하한 후 지금까지 동결해왔다.

이코노미스트 대부분은 금리인하 이외의 특단의 조치도 예상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으며 예상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가 지난 번 정책회의에서 8월 경기부양책 발표를 시사한 터여서 금리인하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영란은행은 8대 1로 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사록에 따르면 멤버 대다수가 8월 금융 완화를 예상했다.

7월 회의에서는 금리인하에 투표한 유일한 멤버인 거트잔 빌레흐 위원 외에 앤디 홀턴 위원도 2%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보다 경기 부양을 우선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크리스틴 포브스 위원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엄마들만 아는 작은 차이... '국민물티슈 신화' 새로 쓴다

W 기획 도전하는 여성

13 이미라 뉴본스킨 대표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인간은 목표를 성취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을 소유하면서 느끼는 만족과 행복감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상에 오르기까지 겪은 인고의 시간, 그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물에 따르는 부와 명예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기란 여간해서 결정하기 어렵다. 이미 안정돼 있는 상황을 내려놓고 위기도 따를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데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도전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10년간 일군 것을 뒤로하고 오로지 지해만 갖고 다시 새로움에 가치를 부여하고 험난한 여정에 나선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있다. 물티슈로 연간 400억 원 매출이라는 신화를 쓴 주인공. '순둥이'라는 이름의 물티슈로 명성을 떨친 이미라 뉴본스킨 대표(전 수오미 대표). 물티슈 업계의 신화적인 존재로 평가받는 이미라 대표가 자식 같은 순둥이를 두고 나홀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왜 또 다른 길을 선택했을까. 다시 신화가 쓰일 수 있을까. 이 대표가 원하는 삶은 가치는 무엇이며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들어봤다.

이 대표가 새롭게 등지를 튼 곳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자리한 작은 오피스텔. 10평 남짓 되는 사무실에서 5명의 직원과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뉴본스킨을 설립하고, 스킨케어 브랜드 '간나나기'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새롭게 뭔가 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놀리기도 하고요.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직업을 3번 정도는 바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늦기 전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10여 년 동안 유아용품 업계에서 아기 피부만을 연구했는데, 그동안 쌓은 노하우들을 그냥 묵혀두기에는 아깝더라고요."

물티슈 업계 최초 여성 CEO인 이 대표는 순둥이를 국민 물티슈 반열에 올려놓았고, 다른 길을 택하기보다 기존의 울타리 안에서 신사업을 추진해도 될 텐데 굳이 새 길을 택했다. 이유가 있긴 하다. 기존 업체는 공동대표 체제로 두 사람의 경영



이미라 대표는 물티슈 업계 최초의 여성 CEO이자 국민 물티슈로 꼽히는 '순둥이'를 만든 주인공이다. 최근 이 대표는 10년간 아기 피부만 연구한 노하우를 가지고 홀로서기에 도전. 지난 4월 뉴본스킨을 설립하고 자연주의 스킨케어 브랜드 '간나나기'를 론칭했다.



“연매출 400억 찍은 업계 첫 여사장 '뉴본스킨' 설립 새로운 도전 나서

10년동안 아기 피부 한우물 째지만 엄마의 마음 사기...진입장벽 높아

화학성분 최소화 '간나나기' 론칭 새로운 공정 도입 제조사와 마찰도

여성CEO로 성공? 자기와의 싸움 경단녀 설 자리 만들어 나갈 것

가치관이나 사업방향이 같지 않으면 함께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독자적인 길을 걷기로 했다.

"기업도 생물이예요. 성장기와 쇠퇴기를 거치면서 발전해나가고, 경영진과 조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죠. 막상 스타트업에 하겠다고 나서고 보니 힘든 부분이 많더군요. 실무에 익숙하지 않아 적응하는 데 꽤 걸렸죠. 창업자금을 용자받으려고 구청도 찾았죠. 직접 발로 뛰다니니 CEO 자리에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순둥이를 만들 때는 선두에서는 것이 즐거운 일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는 깨달음도 찾아왔죠"

주변 기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까. 10여 년간 매일 물티슈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3개월이나 걸렸다. 기존 물티슈 생산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데도 완제품을 만들기까지 쉽지 않았단다. 그럴 법도 한 것이 기존 세정 중심의 물티슈를 업그레이드해 보습 역할이 가능한 스킨티슈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 거기다 자연주의 브랜드란 지향하고 있으니 그에 걸맞은 제품을 만들거란 쉽지 않았다. 로션과 크림 등 스킨케어 제품도 마찬가지. 이 대표의 경영가치관은 브랜드명만 봐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간나나기는 '갓난아기처럼 갓 태어난 피부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어가 주는 느낌대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신생아부터 민감한 성인 피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순한 제품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아왔고 그래서 좋다는 제품은 정말 다 써봤어요. 피부는 한 번

손상되면 복구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특히 어린 아기 피부는 외부 자극에 쉽게 손상될 수 있어 오히려 아기 피부만을 위한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소비자는 무서워요. 정말 현명하죠. 지속적으로 리뉴얼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해요."

이 대표는 시장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더 신중했고 조심스러웠다. 아이를 위한 제품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사야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 제품이 정직하고 건강해야 한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인지되기까지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기존 제품들과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했고 이를 연구소와 공장에 요구했다. 그러나 생산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아기 로션 등에 흔히 사용되는 실리콘 오일의 종류인 디메치콘을 빼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작은 차이를 만드는 게 어렵더군요. 유해성분과 화학성분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생산공정과 마찰이 심했어요. 빼고 싶은 성분들이 많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디메치콘의 경우 코팅 효과와 흡수력이 뛰어나 피부가 탱탱해 보이지만 피부에 남아 노폐물과 땀 배출을 어렵게 만들고 트러블의 원인이 되거든요. 저를 비롯해 연구소·공장과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결국 제조사를 2번 바꿨죠."

제조사에서도 그간 없던 생산 공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니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품을 만들어줄 제조사를 찾았고, 생산 당일까지도 싸움을 이어가면서 제조사와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불굴의 의지와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피부에 대한 남다른 애착은 과거 수오미를 경영할 당시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과거 순둥이 물티슈가 유해물질 논란에 휩싸였을 때 독일까지 가서 안전성 인증을 받아왔다. 그 덕에 순둥이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이 대표의 인생을 돌아보면 현실에 안주한 적이 없다. 늘 인생에서 변화를 추구한다. 화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다. 사정학을 전공하고, 예술디자인대학원에서 사정학 석사과정을 밟은 이 대표는 스튜디오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물티슈 사업에 뛰어들었다.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승장구했던 순둥이를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나선 것도 마찬가지.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을 때를 알고 놓을 줄 아는 지혜가 지금의 이 대표를 만든 게 아닐까.

"수오미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는 이 시점에서 돌아켜보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질도 중요하고, 추진력, 결단력, 통찰력 등 CEO가 갖춰야 할 덕목은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업가로서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여성 CEO로서 엄마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제로 경력단절 여성들은 육아 경험으로 상황 대처가 뛰어나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여러 일을 동시에 해내는 만큼 책임감도 강하죠.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설 자리가 많아지고, 여성과 아이를 위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꿈이에요." 글/김민정·사진/최유진 기자 mj_kim@

스타를 읽으면 성공의 길이 보인다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톱스타 12명의 성공비결 그 도전과 열정, 철학을 집중 조명하다

한류 스타들의 생생한 컬러 화보 160여 점 수록

Case #01
장근석
선택과 준비, 전략으로 성공 거둔 스타 아시아의 프린스

Case #02
송혜교
그녀의 성공 = 기회+노력+행운 겸손이로 대륙을 사로잡은 '한류 여신'

Case #03
손예진
대중성과 평행선, 연기력이 최고인 여배우 톱스타! 흥행으로 통행 권

Case #04
김태희
연기거로서 완벽한 성공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스타! 아름다운을 대표하는 그녀

Case #05
장나라
백작스타에서 전경향 한류스타까지 명망스타, 중국 '소천후'가 되었다

Case #06
하정우
배경 아닌 실력으로 일군 성공 마성의 매력 톱스타 '전민 배우'

Case #07
이승기
꿈꿨던 노력이 성공비결 최고의 트러블 크러너 스타

Case #08
이민호
아시아 최고 한류스타가 된 원동력은? '꽃보다 예쁜' 남자

Case #09
서인국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준비된 스타 '만능 엔터테이너'

Case #10
수지
스물한 살의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의 원동력은? 국민 첫사랑의 아이콘

Case #11
김우빈
절제한 준비로 데뷔 2년 만에 성공한 스타 21세기 한국의 '제임스 딘'

Case #12
나영석
예능 트렌드를 선도하는 최고의 스타 연출자! 그 힘은? '예능계 미다스의 손'

스타(성공)학

*이투데이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이투데이빌딩 | TEL. 02)799-2699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한국문화유산 알린다

LG전자, 문화재청과 대형 전광판 홍보후원 협약 맺어
불국사·창덕궁·해인사 등 '60초 영상' 매일 40회 상영

LG전자가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의 문화 유산을 알린다. LG전자는 8월 한 달간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대형 전광판을 통해 한국의 세계유산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한다고 4일 밝혔다. 문화재청과 진행한 세계유산 홍보 후원 약속의 일환이다. LG전자와 문화재청은 지난 6월 창덕궁에서 한국의 세계유산 홍보를 위한 후원을 약정했다. LG전자는 매일 약 40회에 걸쳐 홍보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약 60초 분량의 이 영상은 불국사, 해인사 정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역사유적지,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한국의 역

사마을(하회·양동),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 제주 화산섬 용암동굴 등 11개 문화유산과 1개 자연유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LG전자와 문화재청은 전 세계 문화, 관광,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우리 문화유산 영상을 상영,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 유산을 알리는 것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대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의 교차로'라고 불리는 뉴욕 타임스스퀘어는 뉴욕 42번가, 7번가,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삼각지대로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약 150만 명에 달한다.



LG전자가 지원하는 우리 문화유산 영상광고가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고판에 상영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정도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전 세계인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는 데 도움이 돼 기쁘다"며 "지

역사회 일원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gutiy@

"사회초년생 월급 쑥쑥 키워드려요"

NH투자 내달까지 '나무 심GO!' 비대면 CMA 개설엔 1만원 입금
입출금 자유... 이체 수수료 무료



NH투자증권의 모바일증권 나무는 다음 달 30일까지 사회 초년생을 위한 '나무 심고GO!'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회 초년생의 재테크 시작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나무의 비대면 계좌개설 앱인 '1minute'으로 개설하는 신규 고객에게 응원 지원금 1만 원을 입금해주는 이벤트이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나무의 CMA는 휴대전화 번호를 입금용 계좌번호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체 수수료는 조건 없이 평생 무료다.

지난 6월 증권업계 최초로 출시한 모바일 증권 나무는 사회 초년생 등 2030 세대를 주요 목표 고객으로 생활 속 증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무 한그루 서비스를 이용하면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앱의 커피 아이콘을

선택, 미리 설정된 계좌에서 나무 CMA 계좌로 커피 값을 쉽게 이체할 수 있다. 소비의 순간을 저축으로 바꿔 사소한 비용을 관리하는 것이 목돈 마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개발되어 무료로 서비스 중이다.

나무는 배우 서현진이 함께한 영상 광고를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선보이기도 했다.

안인성 NH투자증권 디지털 고객본부장은 "모바일증권 나무는 기존투자자의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새로운 금융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한 금융 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바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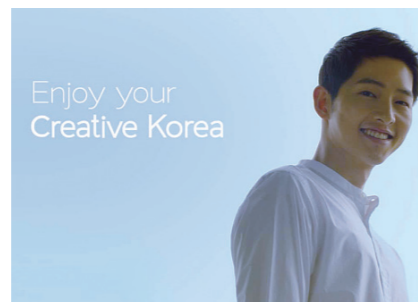
조양호 한진 회장 탁구협회장 연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대한탁구협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대한탁구협회는 3일 각 시도협회와 연맹에서 추천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회장 선거에서 조양호 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단독 출마했으며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다. 지난 2008년 8월 처음으로 대한탁구협회장에 선임된 조 회장은 2016년까지 협회를 이끌어왔다. 허유미 기자 jscs508@



"유대위 보러 한국으로 오시지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월부터 한국의 창의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새로운 해외 광고를 전 세계 주요 국가의 TV 채널과 온라인, SNS를 통해 공개한다.



한류스타 송중기가 출연한 광고 컷. 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이번 해외 광고에는 '태양의 후예'를 통해 대표적인 한류 스타로 떠오른 송중기가 출연하며, 한국만의 창의력의 공간을 이루는 '한국 사람들', 전통을 기반으로 창의적으로 재해석된 '한식',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뜨거운 한국인만의 '열정', 24시간 잠들지 않는 매력적인 '나이트라이프(NightLife)'라는 주제들을 통해 한국 관광의 매력을 담아냈다. 전 세계 20~30대 한류 관심층을 타겟으로 한 이번 광고는 한류스타 송중기를 활용해 한류팬들의 관심을 이끌어내

고자 했으며, 한국에서 주로 즐길 수 있는 쇼핑, 음식 등 익숙할 수 있는 소재들로 구성했다. 공사는 2일 중국 온라인 티저 광고를 시작으로 오는 9일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에 유튜브 광고를 게시하며 23일부터는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 대상으로 로컬 TV 광고를 실시한다. 한국 재방문 기회를 만들어줄 글로벌 온라인 광고 캠페인도 9월에 전개할 계획이다. 공사 측은 "전 세계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새로운 한국관광 해외광고를 소개함과 동시에 한류 스타 송중기를 활용한 글로벌 광고 캠페인이 올해 방향 외래객 유치목표 1650만 명 달성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김경수 성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銀 초대 혁신위원장에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63)가 KDB산업은행의 내부 혁신과 미래 로드맵을 도출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경수 교수는 이달 중 출범하는 KDB혁신위원회를 이끌 초대 KDB혁신위원장에 내정됐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한국금융학회장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흥샘별 기자 byul0104@

리우부터 평창까지 '뱅뱅뱅'

아이돌 빅뱅,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홍보대사에 선정

아이돌 그룹 빅뱅이 우리나라 새 국가 브랜드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홍보에 나선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빅뱅을 새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홍보대사인 '크리에이티브 아이콘'으로 위촉했다고 전했다. 빅뱅은 6일(한국시간) 개막하는 2016

리우 올림픽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응원 메시지, 홍보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빅뱅의 활동을 통해 전 세계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널리 알릴 것"이라며 "대한민국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돌 빅뱅. 사진제공 YG엔터테인먼트

문화부는 지난 달 4일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국가 브랜드로 선정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한화그룹·카이스트, 과학 꿈나무와 '탐구캠프'

한화그룹이 카이스트(KAIST)와 함께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대전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 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융합과학 탐구캠프'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과학에 관심과 열정이 높은 대전지역 중학생 44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의 멘토로는 10여 명의 카이스트 재학생들이 나섰다.

참가 학생들은 태양에너지를 모아 음식을 데우거나 익히는 태양열 조리기기를 직접 제작했으며,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무선조종 RC 자동차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카이스트 연구실 탐방에서는 3편을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세계 최초 미래형 다면 상영



한화그룹이 카이스트와 함께 마련한 '융합과학 탐구캠프'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무선 조종 RC 자동차를 조종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그룹

관인 '스크린엑스'와 물체나 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디지털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션캡처 스튜디오'를 체험했다. 조범호 기자 spdrn@

롯데백화점 임직원 "올 여름 휴가는 국내에서"

롯데백화점은 올해 국내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국내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월악오토캠핑장 등 28개의 휴양지에 약 1000여 개 객실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추가로 신안 엘도라도, 동강 시스타, 용평리조트 등 5개 휴양지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200개의 객실을 추가로 확보, 휴가지 선택의 폭을 넓혔다. 롯데백화점 직영 사원뿐만 아니라 파트너사 직원까지도 이용 가능하다.

국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은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국내 주요 관광지 및 먹거리 장



롯데백화점의 '국내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포스터.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롯데백화점 전 점포의 게시판 등에 소개하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인사

-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장 김송일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조소연 △고위공무위 승진 △대전청사관리소장 허만영 △과장급 전보 △주민생활환경과장 천영평 △지방세특례제도과장 김경식 △지방세입정보과장 서정훈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장 강성천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장 이강욱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장 명창환
- ◆보건복지부 △야동관리과장 임대식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 김일영 △음식안전·복합허브추진단 기반조성팀장 박민정
-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인정숙 △여성정책과장 류기욱 △청소년활동안전과장 강정민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양철수 △복지지원과장 김민아 △

- 과장급 승진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윤세진
-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서실장 윤아선
-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장 황중대 △회생지원부장 주승우 △기업진흥실장 겸 자영업지원센터장 김태웅 △시정협력추진단 양시선 △도봉지점장 정동욱 △성수지점장 이선중 △이수지점장 김승영 △사이버중앙지점장 김경수
- ◆세마울운동중양회 △기획·사업본부장 김대기 △교육본부장 전원홍 △경영사업단장 박노열 △감사실장 직무대리 김명선
- ◆한양대 △서울캠퍼스 △공과대학1 학장 박대호 △ERICA캠퍼스 △프라임(PRIME)사업단장 이재성 △프라임사업단부단장 백동현
- ◆인제대 △프라임사업단장 김태구 △

- 프라임사업부단장 홍용근 △백인제기념 도서관장 박재섭 △박물관장 이영식 △외국어교육원장 김성철 △소프트웨어교육원장 이형원 △한국어문화교육원장 이수경 △식당직영사업단장 박석근
- ◆일동제약 △일동히알테크 대표이사 이은국 △일동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이장휘
- ◆해럴드경제 △모바일편집장 겸 사내벤처총괄팀장 엄호동
- ◆부음
- ▲강성호(성능교회 목사)·성영(한신대 총장서리)씨 모친상 = 3일, 서울의료원, 발인 5일 오전 9시, 02-2276-7695
- ▲이주태(비에프케미칼 대표이사)·주환(삼신일렉콤 대표)·주영(미디어블링 편집장)씨 부친상 = 3일, 분당서울대병원, 발

- 인 5일 오전 5시 20분, 031-787-1502
- ▲정용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 부회장)씨 모친상 = 2일, 대전 유성한가족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42-611-9700
- ▲이인철(현대자동차 전무)씨 모친상 = 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02-3010-2262
- ▲강주형(한국전력기술 책임급)씨 부친상, 이보현(도로공사어린이집 교사)씨 시부상 = 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30분, 02-3410-6907
- ▲이창섭(MBC 드라마본부 드라마2 국 부국장)씨 장인상 = 3일, 부평세림병원, 발인 5일, 032-508-1346
- ▲장영보(전 인동장씨 대종회장)씨 별세, 유식(삼선산업 대표)·혁수(자영업)씨 부친상, 남이체(약국 대표)·신태운(자영업)·김훈식(자영업)씨 장인상 = 2일, 영남대의료원, 발인 5일 오전 8시, 053-620-4231

LG생건 '빌려쓰는 지구스쿨' 중학교 교사연수

LG생활건강이 서울교육청 주관으로 중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하는 '2016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올해 전국 60여 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진행되는 '빌려쓰는 지구스쿨'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면서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교육청이 주관하는 여름방학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LG생활건강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빌려쓰는 지구스쿨'은 습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세안, 화장, 양치, 설거



LG생활건강 관계자가 중학교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빌려쓰는 지구스쿨'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생건

지, 세탁 그리고 진로교육 등의 교과목을 중학교 정규 수업과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전통주’ 대신 한주? 술?

요즘 전통 청주와 탁주 등 전통 양조법에 뿌리를 둔 술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술들을 아울러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신뢰할 만한 분류기준을 만드는 것을 고민할 때인 듯하다. 특히 한국에도 소비자들이 취향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술의 통일된 분류기준이 있으면 술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원산지 명칭이 충청남도보다는 홍성군이, 홍성군보다는 무량리로 표시될 때 특별한 술이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 사케는 쌀의 도정비율, 주정의 첨가 여부, 일본 누룩(코오지) 사용 비율, 담금 방법과 횟수, 살균과 여과 방법 등에 따라 분류된다. 분류방법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술의 주발호제인 누룩은 생곡식을 쓰고 자연접종하기 때문에 지리적 특성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 누룩의 종류와 우리 술의 제조방법은 다양하고 계속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술의 분류기준은 프랑스 와인과 같이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지역을 기준으로 한 우리 술 분류기준이 잘 정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프랑스 와인은 다양한 품종의 포도로 만들지만 관장은 포도주의 경우 생산된 지역, 즉 원산지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프랑스 와인 중 수준급 와인으로 인정되는 와인은 원산지명칭사용허용(A.O.C급) 와인이다. AOC급 와인은 보르도나 맥독 등과 같이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원산지별로 사용 포도, 제조방법, 생산량 등이 엄격히 통제된다.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지리적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원산지가 작은 지역으로 표시될수록 와인이 더 특징이 있고 좋은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곡물로 그 지역에서 누룩을 만들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들어진 술에 그 지역 원산지 명칭을 붙이는 것이다. 원산지는 프랑스 와인과 같이 다양한 범위의 지역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조방법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감미료 등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산지 분류법이 성공하려면 지역 생산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 곡물의 원산지와 생산량 등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흔해진 이천쌀이나 영광굴비의 뒤를 쫓게 될 것이다.

배국남의 직격탄



대중문화 평론가

정형돈과 스타산업의 이면

국 진출 등 2차 시장에서도 수요가 폭증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드가 모랭이 ‘스타’에서 묘파한 것처럼 1cm의 신체, 한 줄의 영혼, 한 조각의 추억 등 스타의 모든 것이 시장에 나오는 시대다.

그런데 말이다. 유·무형의 소중한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 산업의 이면은 어두운 절망이 자리한다. 2005년 2월 22일이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라는 메모만을 남긴 채 스물다섯 살의 젊은 스타 이은주는 목숨을 끊었다. 2008년 10월 2일은 더 충격적이었다. 수많은 대중은 경악했다. 우리 사회는 할 말을 잃었다. 톱스타 최진실이 자살했다. 이은주와 최진실의 비극은 스타산업의 이면, 그 자체다.

스타는 직업적 특수성 등 여러 이유로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는다. 스타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스타를 병들게 하고 극단적인 경우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다.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음반, 공연 등 작품의 흥행 성공 여부에 따라 몸값과 인기가 달라진다. 이윤 창출에 몰입하고 있는 상당수 연예기획사는 스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보다는 더 많은 수입을 위해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한다. 스타는 이윤 창출을 위한 상품일 뿐이다. 이로 인해 소외감이나 우울증은 배가되고 고통은 심해진다. 연예계 특성상 스타는 인기 부침에 따른 위상과 활동, 대중의 시선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다.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셀레브리티화한 사람(스타)의 지사에서 전면적인 상품화로 인한 달콤함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것을 얻지 못해서 생긴 좌절, 상품화로 해결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번민 등이 범벅된 고통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고 분석한다.

정형돈의 경우처럼 예술적 능력의 한계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좌절 등 스타의 속명적 특성 역시 수많은 스타를 고통으로 몰고 가거나 슬럼프에 빠지게 한다. 여기에 대중을 의식해야 하는 스타이기에 안아야 할 생활의 어려움과 아픔도 적지 않다. 몸값과 직결되는 인기와 이미지를 의식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참아야 한다. 속은 고통으로 무너져 내리는데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는 쇼윈도의 모습도 대중 앞에서 연출해야 한다.

일거수일투족이 대중과 대중매체의 관심 대상이 되는 스타들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나 육체적 고통이 있는데도 제대로 치료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일부 스타는 이러한 고통이 쌓여 삶의 종지부를 스스로 찍는 극단적 선택까지 한다.

스타는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정형돈은 프로그램보다 건강 회복이 우선이다. 건강한 정형돈이 돌아와 “보고 있네! 시청자들” 하며 웃길 그날을 기대해본다.

오늘의 인물 8월 4일 정몽헌

정몽헌은 1948년 9월 14일 출생해 2003년 8월 4일 현대 계동 사옥에서 투신해 자살한 경제인이다. 남북 경협을 뜻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벌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그는 1975년 현대중공업(주)에 차장으로 입사해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회장, 현대전선(주) 대표이사 회장(1992), 현대그룹 회장(1998), 현대아산(주) 이사회 회장(2000) 등을 지냈다.

특히 1992년 현대전선(주)을 만들어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 키웠다. 1998년에는 현대그룹 공동 회장에 올라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을 주도했다. 1988년 6월 정

아버지 뜻 좇아 대북사업...특검 압박에 자살로 생 마감

그가 태어난 곳은 서울 성북구다. 아버지는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이다. 보성과, 연세대 국문학과와 경영대학원(석사), 미국 페어레이디스대 경영대학원(석사)에서 공부했다.

그는 1975년 현대중공업(주)에 차장으로 입사해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회장, 현대전선(주) 대표이사 회장(1992), 현대그룹 회장(1998), 현대아산(주) 이사회 회장(2000) 등을 지냈다.

특히 1992년 현대전선(주)을 만들어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 키웠다. 1998년에는 현대그룹 공동 회장에 올라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을 주도했다. 1988년 6월 정

주영과 소 500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넘는 일을 성사시킨 이래 남북 경협을 이끈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이때 정주영의 후계자로 자리를 굳혔고, 2000년 ‘왕자의 난’을 통해 현대그룹의 범통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주)와 현대중공업(주)이 현대그룹에서 분리되고, 현대건설(주)과 하인스반도체(주)가 위기에 빠지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현대아산(주) 회장으로 대북사업에만 전념했다. 그리고 2002년 9월 대북송금 의혹이 터져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대북사업도 어렵게 되자 자살했다.

이은호 미래설계연구원 연구위원 leeeunho7@

온라인 톡톡탁탁 기부



LA 한인 음식점 종업원, 팁 모아 기부 “멋진 가게, 훌륭한 종업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의 한 음식점 종업원들이 손님에게 받은 팁을 모아 불우이웃을 돕는 데 쾌적하기로 해 화제다. 한인타운 갤러리아마켓 내 중화요리점에서 일하는 한인 고교생 9명, 라틴계 주방장을 포함한 주방 근무 직원 7명은 지난 한 달여간 모은 돈 1765달러(약 200만 원)를 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손님에게 받은 팁을 계산대 위에 있는 저금통에 넣어 모았다. 특히 안성국(18) 군은 최근

이탈의 우수 직원으로 선정돼 받은 보너스 550달러(약 61만 원)를 기부해 보냈다. 이 음식점은 ‘이웃과 더불어 정을 나누자’는 좌우명을 내걸고, 노숙인이나 장애인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음식을 내주는 곳으로 알려졌다.

네티즌은 “학생들에게 큰 돈일 텐데”, “아직 세상이 따뜻하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멋진 음식점, 훌륭한 종업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카드로 보는 세상



홍상수 감독과 불륜설에 휩싸인 배우 김민희가 수억 원의 광고모델 위약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민희를 모델로 쓴 화장품 브랜드사가 이미지 훼손 및 계약금 광고를 내보내지 못하는 등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죠. 모델의 ‘품위 유지’는 광고계약상의 조건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스타는 본인의 이미지 추락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감수해야 하죠. 스타의 광고 위약금 잔혹사입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goo.gl/DWt5nR>



ELLE is a trademark owned by HACHETTE-ELIPACCHI PRESSE SA, Paris, France. 02.60.04.3930 www.elle-shop.co.kr

이필상 칼럼



서울대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

부동자금의 투기 함정

의 증가로 내수가 침체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리고 통화공급을 늘려도 투자나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 돈을 풀수록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모순이 나타난다. 이는 마치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리면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몸무게가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기업 부문에서 제조업 가동률이 70%밖에 안 된다. 30%의 설비가 유휴 상태라는 뜻이다. 당연히 기업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올해 기업의 설비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3%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 기업설비 투자는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소비 위축도 심각하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2000년도만 해도 소비 증가율이 12% 이상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소비 실종이다. 이런 경제에 돈을 계속 푸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고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 2013년 말 712조 원에 머물렀던 부동자금 규모가 지난 5월 말 현재 959조 원을 기록했다. 금년 말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014년 하반기부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5차례나 인하하여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렸다. 그러나 경기는 거꾸로 침체하고 부작용을 낳았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가계부채는 1200조 원이 넘는다. 설상가상으로 경제가 언제 빠져 숨이 막힐지 모르는 1000조 원 규모의 부동자금 함정에 빠졌다. 돈을 풀면 무조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통화 공급을 늘릴 때 경기가 살아나려면 경제가 자금을 흡수하여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하는 구조와 체질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자금이 쌓여 경제가 표류하는 모순을 낳는다. 한국은행은 자금이 어디로 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기준금리를 내리고 통화공급을 늘렸다.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침체와 중국경제의 추격으로 대외 수출경쟁력을 잃고 있다. 동시에 고용불안과 가계부채

에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 관련 3법을 폐지했다. 여기에 주택담보 대출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을 대폭 완화하여 주택담보 대출을 자유롭게 받게 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투기가 날개를 달았다. 가뜩이나 저성장과 과잉 부채로 신음을 하던 경제가 방향 감각을 잃었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고사 상태로 치닫고 있다. 경제 성장동력이 꺼져 서민들이 실업과 부채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반해 부유층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소득의 증가로 인해 대규모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사회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향후 경기침체가 심화하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붕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동자금이 산업자금으로 흐르게 하여 경제 흐름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올바르게 하여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고 과감한 금융과 조세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러한 산업구조 개혁을 전제로 통화정책을 적절하게 펴야 한다. 부동산은 국민의 삶의 기반이다. 이를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삼아 투기의 희생물로 만드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더욱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통화정책은 남발하면 경제는 투기 희생물이 된다.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편집부 교열팀 차장

그들은 왜 하이힐을 신었을까

굽이 높고 뾰족한 하이힐은 세련된 도시 여성의 상징이다. 하이힐을 신으면 맵시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당당하고 도도해 보인다. 키가 작은 여성의 경우 구두의 굽높이는 자존심과도 맞물려 있다. 무지와외증, 요통 등의 주범이며, '맷'보다 '건강'을 생각해 이제 그만한 높은 굽에서 내려오라는 지인들의 충고에도 내가 하이힐을 못 벗는



키도 빠르게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하다. 그런데 162.3cm를 대략 162cm로 쓸 때 '162cm 가랑', '162cm 가랑' 둘 중 어떤 게 띄어 써야 할지 혼란스럽다. '가랑'은 명사와 접사 두 모습을 지녔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오는 가랑은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162cm 가랑, 한 시간 가랑, 5% 가랑, 100명 가랑 등과 같이 쓰면 된다. 반면 명사 '가랑'은 어떤 일에 대하여 확실한 계산은 아니나 얼마쯤이나 정도가 되리라고 짐작해 본다는 의미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는 투자한 액수를 크게 넘는 이익을 후천적 요인에 기대를 걸고 아이의 키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 결과 키가 크는 데 유전적 요인보다 후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기자의 아이도 '자녀 예상 키 계산법'(부모 키 합계+13 [남은 13을 빼다]÷2) 결과보다 무려 10cm 가량 더 크다.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한 결과일 것이다."

많은 부모들의 바람 때문일까. 한국 여성이 전 세계 여성 가운데 키 성장 폭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영국 임피리얼칼리지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전 세계 국가의 1914~2014년 평균 키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여성은 162.3cm로, 100년 만에 20.1cm 성장했다. 한국 남성도 같은 기간 15.1cm 커진 174.9cm로, 성장폭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였다. 경제 발전의 속도만큼 국민의

그래도 헛갈린다면 이것만 기억하자. 가랑을 대략 정도, 약 등으로 바꿔 썼을 때 의미가 통한다면 앞말에 붙여 쓴다. 가랑, 대략, 정도, 약이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략과 정도는 명사, 약은 관형사이므로 '대략한 시간' '한 시간 정도' '약한 시간'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모두 한 시간 이 넘을 수도 없고, 한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기준이 되는 수치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남짓' 혹은 '여를' 활용하면 된다.

키가 크는 데도 황금 시간이 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로, 이때 잠을 잘 자야 성장호르몬이 분비된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노는 것 이상으로 잘 자야 무럭무럭 자란다는 말이다. isjysh@

객석 이상 목 한화투자증권 WM투자컨설팅팀장

ETF 투자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가 물음으로 느끼고 있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저금리·저성장'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방법은 없을까? 이에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를 이용한 주식시장 투자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보통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 강조하는 것이 장기 분산투자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장기 분산투자가 꼭 능사가 아닌 이유가 있다. 첫째, 장기투자자는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버티기 어렵다. 수익률은 한번 크게 훼손되면 회복하기까지 떨어질 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둘째, 분산투자는 위험을 줄이는 만큼 당연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최근 국내 증시처럼 박스권을 오르내리면 장기 분산투자의 성과는 좋을 수가 없다.

최근과 같은 시장에서 유용한 전략이 바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이용한 추세 추종 전략이다. ETF는 생소한 경우 왠지 복잡하거나 위험한 상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상당히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속한다.

자금과 같이 코스피가 1900~2000포인트(pt) 사이를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박스권에서, 지수가 떨어지면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면 된다. 예를 들어 지난 브렉시트 이슈로 지수가 1900pt까지 하락했을 때 투자 타 이망이다. 현재 시점 지수를 2000pt로 가정하고 단순 계산해도 5% 수준, 레버리지 ETF를 투자했을 경우 등락에 따른 복리효과 및 거래비용을 고려하더라도 10% 정도 성과 달성을 할 수 있다.

인버스 ETF는 반대로 하면 된다. 특히 오는 8월 예정대로 인버스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면 하락장에서 2배의 성과 달성을 할 수 있겠다.

기자수첩 김희진 산업1부/heejin@

폭스바겐 사태...뿔이 중헌디?

요즘 아우디폭스바겐 매장 분위기는 폭스바겐이 현재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환경부의 인증 취소(판매 중단) 처분을 전후로 매장에 전시됐던 차는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그뿐이다. 사실상 국내시장에서 퇴출, 차량 70% 못 판다'라는 미디어 문구가 대변하듯 폭스바겐이 그동안의 위법행위로 철퇴를 맞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실상은 변한 게 거의 없다. 판매중단 조치를 내린 차량도 예전처럼 운행할 수 있고 리콜조치도 없었다.

폭스바겐은 자진판매 중단 조치라는 핑수를 내 최대 1000억 원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 법적인 문제를 피해 국내에서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떠들썩한 공방이 진행되는 사이에도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폭스바겐 측은 디젤차 배

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들에게 17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결정했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리콜 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폭스바겐 중고차 가격은 12%가량 떨어졌고 딜러사의 경영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인증 취소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이 없으며 중고판매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폭스바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반드시 승소하며 큰소리 치는 환경부와 대형로펌의 뒤에서 법률적 맹점을 파고드는 폭스바겐의 싸움을 지켜보는 소비자의 심정은 어떨까. 아마도 '뿔이 중헌디'란 냉소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혁

| | | |
|---------------------|---------------------|--------------------|
| 논설실 (02)799-6701 | 정치경제부 (02)799-2665 | 국제팀 (02)799-2643 |
| 산업1부 (02)799-2663 | 산업2부 (02)799-2664 | 사회경제부 (02)799-2650 |
| 자본시장1부 (02)799-2641 | 자본시장2부 (02)799-2658 | 금융시장부 (02)799-2648 |
| 뉴미디어부 (02)799-6741 | 기획취재팀 (02)799-2651 | 사건영상팀 (02)799-2646 |

광고접수 광고문의 (02)799-2601 / 28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84

www.etoday.co.kr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아픈 몸은 깨달음을 위한 좋은 도구
아프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아픔과 함께 잘 살아가는 법’ 영성 분야 최고 권위의 노틸러 북 어워드 수상작

인생의 정점에서 갑자기 불차병에 걸려 쓰러진 법대 교수의 감동적인 실화. 그녀는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상실은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 되었다. 영혼에 대해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는 똑같은 평정심을 가지고 인생의 춤과 함께 진정으로 존재하는 법에 대한 안내서

깨지기 쉬운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몸과 마음의 안내서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 이현 옮김 | 236쪽 | 13,500원

모두가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아픔은 존재의 기본 조건이다. 우리 모두는 제 몸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아픔에서 제외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잘 아를 것인가. 깨지기 쉬운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몸과 마음의 안내서

문학의숲

'포켓몬 GO' 부화시킨 '구글 인큐베이터'의 기적

나이엔틱 개요

- 2010**
 - 존 행키가 구글의 사내 스타트업 '나이엔틱' 설립
- 2012**
 - 첫 번째 서비스로 안드로이드 앱인 '월드 트립' 출시
 - 안드로이드용 증강현실 게임 '잉그레스' 출시
- 2014**
 - iOS용 '잉그레스' 출시
- 2015**
 - 구글에서 분사해 독립, '나이엔틱'으로 사명 변경
 - 주식회사 포켓몬의 새 프로젝트 '포켓몬GO' 참여
- 2016**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지서 포켓몬GO 출시



구글X 추진 사업

- 구글 드라이버리스카**
 - 자율 주행차 개발(분사 예정)
- 리플리컨트**
 - 로봇 개발
- 프로젝트 룬**
 - 풍선을 이용한 공중 인터넷 연결
- 프로젝트 윈**
 - 드론을 통한 배송
- 마키니**
 - 연을 이용한 상공에서의 풍력 발전



만개한 벚꽃으로 거리 곳곳이 핑크빛 낭만으로 물들었던 2015년 3월 28일의 오후. 일본의 고도(古郷) 교토에 5600명의 인파가 몰렸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녹초가 된 모습이었지만 만면에 즐거운 기색이 역력했다.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라도 열린 것이나 하면 그렇지 않다. 이들은 편을 갈라 교토를 무대로 하루 중일 땅따먹기 게임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팀을 이뤄 상대편 '포탈'을 점령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Ingress(잉그레스)' 마니아들이다. 1년 전 같은 행사를 개최했을 때만 해도 잉그레스의 인기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당시 참가자는 고작 30여 명에 불과했었다. 그러던 것이 입소문을 타고 1년 새 폭발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로부터 1년여가 흐른 지금, 이번에는 세계 곳곳에서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거리 곳곳을 누비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전부 스마트폰 화면에 등장한 작은 괴물들을 붙잡겠다고 혈안이다. 이들 역시 모바일 AR 게임 '포켓몬GO'에 푹 빠진 사람들이다.

이 같은 기적을 일으킨 게임들을 만든 주인공은 '나이엔틱'이라는 미국 게임 벤처기업이다. 이 회사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구글의 사내 벤처였다. 대표인 존 행키는 잉그레스와 포켓몬GO의 연이은 성공으로 위치 기반 게임의 선구자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행키는 미국 텍사스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프로그램을 익혔다.

어린 시절부터 게임을 좋아해 1979년 출시된 가정용 PC '아타리400'으로 직접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텍사스 오스틴대학을 졸업한 그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MBA)를 취득했다. 이전부터 게임회사 설립을 꿈꾸던 그는 친

구글서 지도관련 부서 근무한 존 행키 노하우 쌓아 사내 벤처 '나이엔틱' 설립 조직개편으로 퇴사... 닌텐도와 제휴 독립 1년만에 '포켓몬 GO'로 잭팟 주식 30% 보유한 구글도 '낙수효과'

구가 시작한 '아키타이프 인터랙티브(Archetype Interactive)'라는 게임회사에 합류, 이 회사가 개발한 유일한 게임인 'Meridian 59' 개발에 참여했다.

행키가 잉그레스와 포켓몬GO로 큰 성공을 거두기까지의 과정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행키는 친구 회사에서 나온 후 두 차례의 게임회사를 창업했

다가 세 번째로 위치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회사 '키홀'을 창업했다. 그는 키홀을 통해 '어스뷰어(Earth Viewer)'라는 지도 앱을 만들었고, 이 앱은 키홀이 2004년 구글 산하로 편입된 후 '구글 어스(Google Earth)'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 행키는 구글 산하에서 구글 스트리트뷰, 구글맵스 등 지도 관련 서비스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하다가 사내 벤처 나이엔틱을 설립했다.

하지만 구글 산하에서 나이엔틱은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작년 8월 구글이 조직 개편과 함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나이엔틱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구글은 나이엔틱에 안드로이드 부문에 흡수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행키는 독립을 결정했다. 구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게임의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독립한 행키

는 바로 외부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팔을 걷었다. 나이엔틱은 일본 닌텐도와 손을 잡았다. 닌텐도와 그 자회사인 포켓몬, 그리고 자신의 모태였던 구글로부터 총 30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

애널리스트들은 포켓몬GO가 연간 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비랑 끝에 내놓았던 닌텐도에 부활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물론 나이엔틱의 주식을 30%가량 보유한 구글도 포켓몬GO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켓몬GO의 성공에 대해 "집 밖으로 나와 몸을 움직여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개념은 잉그레스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면서도 "그러나 포켓몬의 파워와 캐릭터의 매력에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구글에서 창업하라... 'AREA 120'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잉그레스'와 '포켓몬GO'를 연이어 성공시킨 나이엔틱은 지난해 구글에서 독립했지만 여전히 구글의 DNA가 흐르고 있다. 이 회사의 모태는 구글의 사내 벤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구글의 사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최근 들어서야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구글은 창사 이래 가장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알파벳' 산하에 구글 등 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거대한 변화에 앞서 구글은 내부적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안드로이드의 아버지' 앤디 루빈이 2014년 10월에 갑자기 회사를 떠나면서 그가 담당하던 구글의 핵심 사업인 로봇 개발 프로젝

트가 중심점을 잃은 것이다.

그 1년 전 부사장 후고 바라가 중국 샤오미의 글로벌 사업부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충격을 받은 터에 루빈까지 떠나게 되자 구글에는 또 한번의 정전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 루빈이 지휘하던 로봇 개발 부서는 갑작스러운 리더십 부재로 사기가 꺾였고, 사업은 표류했다. 구글은 루빈의 후임으로 카네기멜론대 교수였던 제임스 카프너를 로봇 개발 책임자로 영입했으나 그가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인공지능(AI) 개발회사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TRI)' 멤버로 자리를 옮기면서 로봇 개발 부문 책임자 자리는 다시 공석이 됐다. 그로부터 수개월 뒤 루빈은 하드웨어 시스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플레이그라운드 글로벌'을 설립했다.

"20% 타임룰 제약" 핵심인력 잇단 퇴사 "유출 막아라" 풀타임 벤처 시스템 전환 사업계획 인정받으면 사내서 창업 가능 자율주행차·로봇 등 혁신제품 개발중

핵심 인력이 줄줄이 빠져나가자 구글은 인적 자원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계기로 구글은 개발과 투자 부문으로 크게 나뉘었다. 지주회사 알파벳을 중심으로 산하에는 검색 및 광고 등을 담당하는 구글을 비롯해 각종 첨단 기술 연구를 진행하는 '구글X', 스마트홈 관련 '네스트', 바이오센스케어 '칼리코'와 같은 사업 부문이 포함됐다.

지주회사 전환 후 구글X는 과감한 연구 프로젝트 수행뿐 아니라 유망한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강화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올 4월 발표한 사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구글 캠퍼스 인근에서 도로주행 테스트를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AP 뉴시스

'AREA 120'이다. 이전까지 구글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의 20%만 신규 프로젝트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했다. 나이엔틱의 구글 스트리트뷰, 구글맵스, 그리고 지메일도 이 '20% time rule'을 통해 탄생한 작품이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 때문에 자유롭게 개발에 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인재들이 줄줄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루빈도 이 중 한 사람이었다.

사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구글은 AREA 120 구상을 발표하고, 특별 프로젝트에 풀타임으로 임할 수 있게 방침을 바꿨다. AREA 120에 참여하려면 사업 계획을 제출해 회사로부터 진행해도 된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은 관련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구글 산하에 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현재 구글X에서는 자율주행차(구글 드라이버리스카)와 로봇(리플리컨트), 풍선을 이용한 공중 인터넷 연결(프로젝트 룬), 드론을 통한 배송(프로젝트 윈), 연을 이용한 상공에서의 풍력발전(마키니) 등 기발한 상상들을 현실로 바꾸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이는 모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된 창의와 혁신의 산물. 가상과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문 '잉그레스'와 '포켓몬GO'를 개발한 나이엔틱도 예외는 아니다. 구글은 사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통해 내부 단속과 자체 DNA 확산에 시동을 걸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온 국민의 수소수 일반화, 생활화를 위해 더 수소수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
더 피부
더 미용
더 수소수/신의 한 水**

더 수소수의 6대 혁신 기능

- 최소 1,000ppb 이상 수소 용존 수치
- 수소 용존 시간 장시간 오래 유지
- 온도 변화에도 높은 수소 용존량
- 환경호르몬 없는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
- 무접점 전원 공급 시스템으로 사용 편리
- 무선 충전 전원 스탠드로 휴대전화기 충전

제품명 수소수 생성기 모델명 TSH-100 전 원 DC5V, 2A / 소비 전력 5W 이하 크 기 14cm X 23cm 무 게 1kg 내외 재 질 트라이탄(PCTI), PC, ABS 외

(주)더수소수 더 수소수 신제품 출시 기념 혁신 특가 66,000원 X 3 (카드 무이자 3개월) 24시간 무료 상담 전화 080-280-5555 www.thesoososo.com

“척 보면 안다”... ‘우버’ 가치 높이 평가 운용자산의 절반 투자

(14억5800만 달러)

스타트업 요람 역할 ‘GV’

AI·생명공학 등 300여곳 투자
자금·기술·마케팅 등 전폭 지원

“구글에서 밀어준다” 한마디면
투자받은 기업들 신뢰도 상승



빌 매리스
GV 최고경영자

GV의 주요투자 (단위: 100만 달러)

| | |
|-----------------|-------|
| 우버(2014년 6월) | 1,200 |
| 우버(2013년 8월) | 258 |
| 슬랙(2015년 4월) | 160 |
| 클라우드라(2014년 3월) | 160 |
| 제로닷컴(2015년 2월) | 140 |

알파벳의 벤처캐피탈 회사인 GV는 스타트업의 요람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다.

GV는 지난 2009년 구글 산하 구글벤처스로 출범했으며 지난해 12월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다.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은 300여 곳에 달하며 그 분야도 생명공학과 헬스케어 인공지능(AI) 로봇 교통수단 사이버보안 농업 등 매우 다양하다. 빌 매리스 GV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말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드와의 인터뷰에서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포트폴리오에서 생명공학·헬스케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했지만 2015년은 31%로 커졌다”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도 많은 기술기업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분야”라며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쪽으로 진출하는 스타트업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전에 데이터 분야에 속했던 AI를 따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설립 당시 1억 달러(약 1123억 원)의 자금으로 시작했으며 현재 운용 자산은 24억 달러에 달한다. 2014년에는 유럽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기 자본금 1억 달러의 새 벤처펀드도 설립했다.

GV는 단순히 자금을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투자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일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의사, 과학자와 마케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GV는 구글과 모질라 등의 일류 디자이너로 팀을 구성해 스타트업들의 제품 디자인을 돕고 있다.

GV는 모회사인 알파벳이나 구글과의 상호 교류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 기기 업체 네스트는 GV의 투자를 계기로 지난 2014년 32억 달러에 구글에 인수됐다.

GV는 ‘될성 실은 떡잎’을 알아보는 탁월한 안목으로도 유명하다. 세계 최대 차량공유 업체 우버의 가치를 처음 알아본 것도 GV다. GV는 지난 2013년 8월 우버에 2억58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당시 GV 사상 최대 규모 투자였다. 그 다음 해에도 12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 당시 우버 투자를 담당한 빌 매리스는 “우버의 기업가치는 장기적으로 20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업무용 메신저 슬랙, 빅데이터 전문 기술업체 클라우드라, 제2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제트닷컴

등도 GV의 대폭적인 투자를 받았다.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만 갖고 있다고 GV의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매리스 CEO는 지난 7월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한때 촉망받는 생명공학 분야 스타트업이었지만 투자자 기반 등의 혐의로 몰락한 혈액진단업체 테라노스에 GV가 투자하지 않은 이유도 밝혔다. 그는 “테라노스 이사회에는 생명공학에 경험이 있는 투자자나 과학자가 없었고 엘리자베스 홈스 CEO도 해당 분야에서 오래 일한 경력이 없었다”며 “테라노스가 설립될 때부터 그 어두운 운명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GV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비그링크의 설립자 겸 CEO인 올리버 뚝은 벤처캐피탈로서 GV의 가장 큰 장점으로 브랜드와 지원을 꼽았다. 브랜드 측면에서 그는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세콰이어캐피탈이 최고이며 구글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인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고객과 파트너, 구직자 등을 만날 때 구글의 브랜드 인지도는 압도적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구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GV로부터 최고 제품 디자이너를 지원받아 제품 출시 일정을 6개월이나 앞당기고 다른 전문가와는 광고전략을 의논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얻는다”며 “GV는 자신의 평판을 중시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한다”고 덧붙였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인큐베이터’서 ‘엑셀러레이터’로 진화

3개월~1년 집중 지원...드롭박스·에어비앤비 홀로서기 이끌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뒷받침해온 ‘인큐베이터(incubator)’가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로 진화하고 있다.

엑셀러레이터는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가진 스타트업에 적절한 투자와 조언을 제공해 성공적인 벤처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넓게는 인큐베이터에 포함된다.

인큐베이터가 사무실이나 설비 제공 등 하드웨어적인 면에 좀 더 치중한다면 엑셀러레이터는 각종 멘토링과 교육을 제공하고 인맥을 연결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으로 스타트업을 돕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인 인큐베이터는 주로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며 분야가 생명공학과 의료 기술, 환경 등 다소 한정돼 있다. 그러나 엑셀러레이터는 민간에서도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업종 제한도 거의 없다. 어떤 기업가에도 열려 있지만 그만큼 지원을 받으려면 혹독한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엑셀러레이터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통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제한되는 지원기간을 꼽고 있다. 인큐베이터는 지원기간이 일반적으로 1~5년이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교육과 지원이 이뤄지며 이 기간 창업자들은 집도 거의 못 하고 프로그램을 따라가야 한다.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언론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데모 데이(demo day)’를 갖는다.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의 차이

| 인큐베이터 | 엑셀러레이터 |
|-----------|-------------|
| 1~5년 | 3개월 |
| 임대, 비영리 | 투자, 비영리도 가능 |
| 비경쟁적 | 경쟁적 |
| 초기 또는 후기 | 초기 |
| 최소, 전술적 | 집중적 |
| 정부 | 민간 |
| 특정 분야로 한정 | 제한 없음 |

※ 출처: MIT 프레스저널

멘토링·인맥 연결 소프트웨어 초점

창업자 잠도 못 자고 프로그램 수행

국내 화장품 ‘미미박스’도 지원 받아

인큐베이터는 최고경영자(CEO) 단체인 CEO클럽 설립자인 조셉 맨쿠소가 1959년 뉴욕에서 바트비아인더스트리얼센터를 세우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5년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가 설립되면서 엑셀러레이터라는 개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인도 일간지 타임오브인디아는 지난달 9일(현지시간) 와이콤비네이터가 처음으로 인도 스타트업 3곳을 지원·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보

도했다. 단지 선정된 사실만으로 뉴스가 될 만큼 엑셀러레이터의 선택을 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와이콤비네이터와 테크스타스 등 업계 상위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이 지원을 받을 확률이 1~3%에 불과하다.

엑셀러레이터가 주목을 받은 것은 이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스타트업이 속속 탄생했기 때문이다. 와이콤비네이터는 지난 2005년 이후 1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했으며 지원을 받은 창업가는 2400명이 넘는다. 또 이들 스타트업 기업가치는 650억 달러(약 73조2095억 원)가 넘는다. 웹파일 공유 서비스업체 드롭박스와 세계 최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우리나라의 화장품 전문 이커머스업체 미미박스 등이 와이콤비네이터를 거쳤다. 와이콤비네이터는 1년에 두 차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업체들에 각각 12만 달러의 시드머니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해당 스타트업 자본 7%를 받는다. 와이콤비네이터는 그동안 많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구축한 방대한 졸업생 네트워크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결제업체 스트라이프의 패트릭 콜리는 설립자는 “와이콤비네이터가 없으면 스트라이프가 성공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초기 고객 확보, 채용 문제, 은행과의 딜, 자금조달 등에서 깊게 관여해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며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투자서 해외 진출까지’ 구글캠퍼스 창업허브로

서울 캠퍼스 입주 스타트업
지난 1년간 121억 자금 유치

지난해 구글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구글캠퍼스가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관해 화제가 됐다. 서울은 지난해 5월 영국 런던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구글캠퍼스다.

구글캠퍼스는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허브로 기업가들의 투자 유치에서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스페인과 브라질, 폴란드까지 전 세계 6개국에 설립됐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사무실을 구할 돈마저 부족한 스타트업에 구글캠퍼스는 따라가야 한다. 이곳에 입주해 사무실과 회의실 등 업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개발자들이 만든 앱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채택한 모바일 기기 등이 있는 디바이스랩도 갖추고 있다. 이곳에 많은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모이기 때문에 인맥을 쌓거나 서로 노하우를 공유할 기회도 생긴다.

창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창업자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멘토링은 물론 기획과 마케팅에서 앱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스타트업들이 해외 다른 구글캠퍼스를 방문해 현지 투자자와 전문가, 스타트업들을 볼 수 있는 ‘캠퍼스 익스체인지(Campus Exchange)’도 있다.

미국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구글캠퍼스가 고용창출과 자금조달, 남녀평등의 기여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글캠퍼스 서울 측은 “문을 연 후 1년간 450개 이상의 창업 관련 행사를 개최했으며 2만 명 이상의 창업자들이 방문하고 입주 스타트업들이 총 121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또 캠퍼스는 얼마 창업가들이 아기와 함께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캠퍼스 포 맘스(Campus For Mom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성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

우리 아이의 **꿈**노트, 직접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현대오피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사무기기는 현대오피스입니다

(주)현대오피스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가정에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오피스의 코팅기로 내 아이의 목소리나 교육용 시작해보세요!
전제품 안전인증마크 획득으로 더욱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플 & 스마트한 탁상용 문서세탁기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그만
고지서·영수증을 깔끔하게 세면

엄마표 교구제작의 필수품! 코팅기

빛에 바래거나 물에 젖을 일 없게
중요문서·아이들 교구까지

나만의 책 만들기로 학습효과 UP! 제본기

제인서·연습장·교재제작 등
필요한 내용만 썩씩!

www.hd2.co.kr 검색 **현대오피스** 제품구매 및 상담 **1566-3445**

제품구매처 | 현대오피스 쇼핑몰 www.hd2.co.kr |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넷, 조달청 나라장터,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공무원연금계좌소통, 씨제이, 신세계, 1300K, NH마켓, nsmall, d&shop, 현대 Hmall, GS SHOP, 롯데닷컴, 롯데이몰, 네이버 지식쇼핑, 네이버 체크아웃, 네이버 샵, B2B ZONE, 예누리닷컴, 어바웃, 다나와



블로그 제작 툴 기업 '오토매틱' 직원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Smart Work)'의 시대가 오고 있다.

블로그 제작 툴 워드프레스(WordPress)로 유명한 '오토매틱(Automattic)'처럼 직원들의 원격 근무를 허용하고 휴가 일주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전 세계 45개국에 있는 오토매틱 직원 470명은 집이든 휴가지든 장소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 업무상의 교신은 이메일보다는 블로그와 모바일 메시징 앱 '슬랙(Slack)' 등을 통해서 한다.

블로그·모바일 메시징 앱 '슬랙' 이용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근무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처럼 오토매틱도 직원들이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휴가를 떠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오토매틱은 1년에 3-4주간 직원들이 특별로 또는 회사 워크숍 차원으로 세계 여행을 가기도 한다.

이런 업무방식은 기존 기업구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오토매틱은 신입사원들이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민첩하고 스마트해야 하는 젊은 기술기업들에 기존의 사무실에 바탕을 둔 근무정책은 맞지 않는다고 FT는 지적했다. 영국 크랜필드대 경영대학원(MBA)의 클레어 캘리히 교수는 "기술 발달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일부 기업도 직원을 채용하고 일하는 방식에

서 더욱 창조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스마트워크는 벤처나 스타트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캐나다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텔러스(Telus)는 이미 10년 전부터 사무실 공간 확보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탄소가스 배출도 감축한다는 목표로 직원들이 근무장소를 탄력적으로 정하게 했다. 2만7000명 직원 가운데 70%는 사무실과 집 어디



오토매틱 직원들이 사무실이 아닌 야외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오토매틱 웹사이트

에서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이들은 아예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근무할 수 있다.

샌디 매킨토시 텔러스 인력·문화 담당 부사장은 "나이 든 리더들에게 결과만 나온다면 사무실이 필요 없는 현재의 경영 방식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으며 "모든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탄력적 근무제가 직원은 물론 환경과 비용 절감에 좋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하자 변화가 가속화됐다. 거대한 기업문화 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제도 도입으로 '직원 몰입도(Employee engagement)'가 지난 6년간 54%에서 87%로 경증 뛰었다"고 했다. 직원 몰입도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성공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쏟는 시간과 에너지 등을 나타내는 수치다. 또 텔러스는 매년 4000만 달러(약 460억 원) 이상의 임대료 등 사무실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전체 직원의 통근 거리가 거의 3300만km 줄어 연간 8000t에 이르는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고 있다.

일부 기업은 스마트워크를 악용해 퇴근 이후나 휴가 중에도 일을 시키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최근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도입했다.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는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에 접속해 있거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리다. 독일 대기업들도 근무시간 이외 이메일을 억제해 스마트워크의 부작용인 '끊임없는 업무시간' 문제를 고치려 한다고 FT는 전했다.

사실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기업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료 절감을 가장 큰 도입 이유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 대부분은 직원이 자신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산성 향상 효과도 누리고 있다. 스탠퍼드대는 최근 중국 콜센터 직원들이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9개월간의 실험을 한 결과 집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는 동료보다 13.5%보다 더 많은 전화를 걸거나 받았으며 이직률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전 세계 곳곳에서 스마트워크가 중심이

회사는 임대료 아끼고 직원은 능률 올라 英 기업 70% "4년내 스마트워크 도입"

된 '일터의 혁명'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FT는 강조했다. 영국 랭카스터대의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70% 이상은 오는 2020년까지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컨설팅업체 글로벌워크플레이스에널리틱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현재 전체 인력의 20-30%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케이트 리스터 글로벌워크플레이스 사장은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은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신이 정하고 싶어 한다"며 "일주일에 2-3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꼭 사무실에서 일해야 하나요?

세계 곳곳 일터 혁명... '스마트워크' 시대 온다



직원 관리 어떻게

가상공간서 주기적 미팅... '원격조정 리더십' 키워야

떨어져 있는 팀원들과 의사소통 중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를 중요시하고 고립감 들지 않도록 동기부여해줘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워크'는 물론 글로벌화에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사무실이나 공장 콜센터 등을 설치하면서 관리자들이 원격 조정 리더십을 배울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 미국 뉴욕에 있는 직장 상사가 인도 뭄바이나 중국 베이징에 있는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회의하는 일이 일상적인 상황이었다.

오늘날 위치와 시간대, 문화가 서로 다른 팀원들 사이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관리자들은 공감과 융통성 등 좋은 매니저로서의 스킬은 물론 기획력과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역량을 쌓을 필요가 커졌다. 세계 곳곳의 팀원들과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의사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도 커진 것이다.

세계 최대 PC업체인 중국 레노버의 이슬라 라모스 차브스 이사는 "직원들이 매일 서로 보기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다"며 "관리자들은 직원 각자와 팀 그 자체 모두에 뚜렷하게 미션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팀원들이 자신의 사업부나 회사 전반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관리자의 역할"이라며 "만일 그렇게 하

지 못하면 직원들이 고립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중요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관리자가 팀원 각자와 일정 시간 함께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특정 팀원과 가상공간에서 함께 있었다고 미리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이 홀로 일하다가 상사의 지시를 받아 일이 생길 때는 정해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워크 조직을 이끄는 관리자들이 직원들이 책상에 얼마나 오래 붙어 있었는지 보다는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을 시작할 때부터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목표를 명확히 하면 관리자도 팀원 모두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피드백도 쉽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HERNO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무역센터점 / 02 3449 5965 · 02 3467 8377

선도모델 제시하고 자금지원 확대... 첨단농업 속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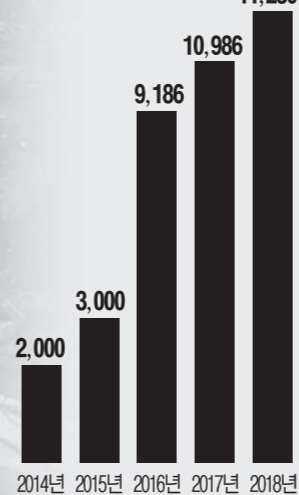
농업이 미래다

② 스마트팜 보급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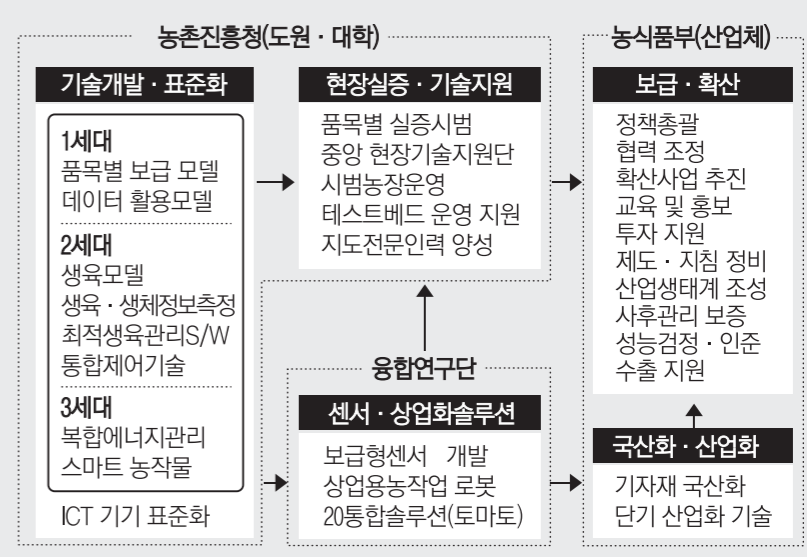
시설원예, ICT 장비 업그레이드 촉진, 돈·계 이어 한우·젓소 허용 최근 2년간 후계농 1561명 교육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500억 규모 전용 모태펀드 조성 이통사 협력 데이터비용 2년 면제



스마트 팜 R&D 예산 (단위: 백만원)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 협력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중점 추진 정책 중 하나가 스마트 팜 확산이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농업인구의 고령화, 영세한 영농규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팜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첨단농업 구현을 정책 목표로 스마트 팜 보급 정책을 본격 추진해 왔다. 올해 초에는 2017년까지 시설원예 4000ha, 축산농가 730호에 보급해 농업 첨단화를 추진하겠다는 업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분야별로 보면 올해 600ha 시설원예의 ICT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수출전문 스마트 팜 온실을 신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해에는 양돈·양계로 제한했던 것을 올해는 젓소·한우로 확대하고 보급할 스마트 축사 모델을 확정했다. 지난 5월까지 축산농가로부터 스마트 축사 신청을 받은 결과, 291건이 접수돼 올해

목표인 200건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식품부는 스마트 팜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노지 밭작물로 확대하고 인삼과 대파를 ICT 모델 개발 과제로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원활한 스마트 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도입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입 초기 농가의 경우 지역별로 후계농 대상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34회에 걸쳐 1561명이 교육을 받았다. 또 체험형 실습농장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10개 농장을 발굴, 운영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2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스마트 팜 도입이 안정화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마스터대학 등과 연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품목·시설수준·규모별로 선도모델을 발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농가들이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

설원에 7곳, 과수 1곳, 축산 3곳 등 11가지 선도모델을 개발, 제공했다. 농식품부는 일반농가에서 스마트 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초기투자 비용 부담이 큰 만큼 농가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500억 원(정부 400억 원, 민간 1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팜 전용 모태펀드를 조성,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스마트일계인베스트먼트(200억 원), 유쿠아이파트너스(150억 원), CKD창업투자(150억 원) 등 운용사 3곳을 선정했다.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대상은 농림축산업에 ICT를 접목하거나 시설신축 및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도모하려는 경영체이며, 출자비율은 조합 약정 총액의 80% 이내에서 가능하다. 존속기간은 8년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이상 10년 이내(2년 이내 연장 가능)로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팜 전용 모태펀드 조성 이외에도 지난 6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개설을 통해 농업인들이 다양한 채널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5월 크라우드 펀딩 운영업체 3곳을 선정해 대 이어 펀딩에 참여할 기업 18곳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시설 임대사업을 위해 3월 플랫폼 회사를 설립하고 영암 파프리카, 이천 버섯 등 투자 대상 사업을 발굴, 설명회를 가졌다. 이밖에 SKT·KT 등 ICT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올해 스마트 팜 설치 농가에 대해 2년간 데이터 비용 면제와 함께 세종 두레농장, 서울, 용인, 부여 등에 상설교육을 확대 추진하는 등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도모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추진한 스마트 팜 보급 및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해 성과 분석을 통해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시설원예 스마트

팜 시설보급 사업자를 추가 발굴하고 예비사업자 확보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설채소, 화훼류 주산지인 사·군을 대상으로 추가 사업자 모집을 주려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중도 포기하는 농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 수출전문 스마트 팜 사업자를 조기 선정하고, 노지 스마트 팜 모델 개발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내년 신규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형 스마트 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24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9억8600만 원의 R&D 예산을 투입했으며, 이어 2017년 109억 원, 2018년 112억 원을 예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투자 유치 플랫폼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컨설팅 및 다양한 수익모델을 개발, 추진키로 했다. 김덕현 기자 dhkim0715@

사육·도축·판매... 축산농가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

농식품부가 축산 정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축산물 수급 안정과 제품의 안전성이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그 특성상 단기간에 안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축산물 생산 주기는 소 3~4년, 돼지 6개월 등 중장기적 생산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축산물은 도축장을 거쳐야 유통이 되기 때문에 도축장 중심의 유통 효율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

을 통해 운영 효율화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09년 전국 106개소에 달하던 도축장이 75개소로 축소됐다. 또한 축산물 생산과 유통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도축장 육성을 추진해 2011년 5개소를 올해 15곳(농협 8곳, 민간 7곳)으로 확대했다. 또 정육식당, 식육축척가공관매점 등 유통 경로 다변화를 통해 축산 농사의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최근 4년간 유통비용 절감액을 보면 2013년 1047억 원, 2014년 1593억 원,

2015년 180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민간의 수급조절 역량을 제고해 정부 구매 없이 수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장 조절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선 2013년부터 한우, 돼지, 닭, 오리, 계란, 우유 등 품목에 대해 수급조절 협의회를 통해 수급 관리를 하고 있다. 목장형 유가공업 활성화, 축산물 파커 육성, 해외 수출 강화 등을 통해 수요 창출에도 노력해 왔다.

유통 연계 '거점도축장' 육성... 작년 1807억 절감 안전성 인증 HACCP제도 유도 친환경 공급 확대

농식품부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신경을 쓰는 것이 축산물의 안전성이다. 축산물은 구제역, AI 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항생제·중금속 잔류 등 인체 유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육부터 판매까지 엄격한 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친환경 축산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부가 축산물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HACCP제도를 일선 농장들이 적극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축산물 이력제 확대, 동물

복지 인증대상 확대 등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친환경 축산물 공급이 2012년 57만 톤 정도에서 지난해 83만 톤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향후 축산물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친환경 축산물 육성, 가축질병 관리 강화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전제도 개선, 이력정보와 축산관측을 연계한 실시간 출하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단위 쿼터제 도입 등 원유 수급조절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한국형 산지생태축산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덕현 기자 dhkim0715@

ISO 9001 인증업체

아이타올(주)

THE BEST OF YOUR LIFE

라인 타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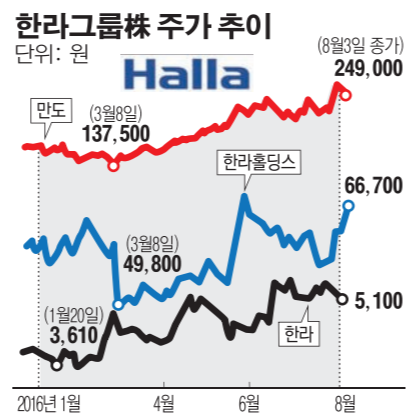
로고자수 타올

www.itowellmall.co.kr 대표번호 02) 755-1091



백조로 부활한 만도·한라 지주사 한라홀딩스도 好好

만도 2분기 매출 9.1% 상승
한라도 재무리스크 완화
“모기업 가치 재평가” 목소리



전자지원시스템) 제품 매출 확대도 호 실적을 냈다.

3분기도 호실적이 기대된다. 중국과 인도시장 호실적 지속과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신차 출시 일정(G80, 그랜저, G70)에 따른 고가 차종량 ADAS 매출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프엔 가이드에 따르면 만도의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1조3555억 원, 영업이익은 10.20% 늘어난 68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훈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한라홀딩스가 보유한 자회사 가치 7808억 원 중 만도에 대한 가치는 75%에 준하는 5886억 원”이라며 “큰 폭의 자회사 지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룹사 저평가를 불러온 건설 계열사 한라도 재무리스크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별도기준 1분기 6000억 원대에 달했던 차입금은 2분기 말 3000억 원대 규모로 축소됐다. 유지용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동탄물류단지 매각, 오산물류창고 수익권 매각 등을 통해 추가로 2000억 원가량 자구책 이행이 계획돼 있다”며 “수익성이 좋은 시흥배곧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며 차입금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라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490억 원을 기록하며 2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한라홀딩스는 지난 3월 특수목적법인 한라제주개발을 설립해 제주 세인트폴 골프장-배후부지 개발사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에니스 최대주주인 한라에 1000억 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했다. 세인트폴 골프장은 지난날 퍼블릭 전환을 완료했고, 연내 52개 골프텔을 매각할 예정이다. 유지용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만도의 실적 호조와 한라의 차입금 감소, 한라제주개발 관련 불확실성 축소 등 그룹사 리스크 완화로 한라홀딩스에 대한 시장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기자 mj@

‘경기방어’ 옛말... 힘빠진 CJ株

주요계열사 실적부진 이어지며
헬로비전·CGV 등 주가 급락
3개월 사이 시총 1.25조 증발
헬로비전 합병무산 등 악재 겹침

| 종목명 | 2016년 5월 19일 | 8월 1일(당락) | 수정주가 |
|---------|--------------|------------------|------|
| CJ E&M | 67,300 | 70,100 (4.16) | |
| CJ대한통운 | 194,500 | 202,500 (4.11) | |
| CJ제일제당 | 380,000 | 387,000 (1.84) | |
| CJ씨푸드 | 3,445 | 3,350 (-2.76) | |
| CJ | 214,000 | 198,000 (-7.48) | |
| CJ프레시웨이 | 54,200 | 44,350 (-18.17) | |
| CJ오쇼핑 | 199,800 | 160,200 (-19.82) | |
| CJ CGV | 114,500 | 88,000 (-23.14) | |
| CJ헬로비전 | 12,300 | 9,220 (-25.04) | |

※ 출처: 에프엔가이드

CJ그룹 상장사들이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내수주'로 각광받던 CJ그룹주는 신동창은 실적과 각종 악재를 만나면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CJ그룹주의 시가총액은 1조2500억 원 증발했다. 계열사 중 CJ헬로비전(-25.04%), CJ CGV(-23.14%), CJ오쇼핑(-19.82%), CJ프레시웨이(-18.17%) 등이 크게 하락했다. 지주사인 CJ의 주가도 7.48% 빠졌다. 이 기간 주가가 상승한 계열사는 CJ E&M(4.16%), CJ대한통운(4.11%), CJ제일제당(1.84%) 등 3곳뿐이었다.

CJ그룹 계열사들은 방송엔터테인먼트와 음식료 사업 등 내수·소비 계열사가 대부분을 차지해 대표적인 경기방어주로 꼽힌다. 그러나 주요 계열사들의 부진한 실적에서 출발한 하락세가 연중 이어져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계열사 전반의 실적 악화로 그룹의 단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장기 성장에 대한 의구심마저 생기면서 지주사의 주가가 계속 떨어졌다”며 “CJ제일제당의 주가도 박스권을 뺄고 있고, CJ CGV도 지난해 말 고점 대비 연일 하락 중이다”고 분석했다.

계열사별로 맞닥뜨린 악재도 주가 조정을 불러왔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M&A)이 결국 무산되면서 대폭 하락했다. 정운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합병 무산에 따라 사업 시너지에 대한 기대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M&A 무산에 따라 CJ오쇼핑에 대한 1조 원 규모의 매각 대금 유입도 백지화됐다. 올 들어 흡수병합이 꾸준히 좋지 않은 점도 부담이다.

CJ CGV는 관람객 수 증가는 거의 없었던 반면 관련비는 증가하면서 저조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캐시카우(현금 창출원인) 국내 영화관 실적이 직영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으로 시장 추정치(컨센서스)를 밑도는 실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한류 콘텐츠에 보복성 규제를 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CJ CGV와 CJ E&M 등 엔터테인먼트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유혜은 기자 euna@

토종구두 무크 매물로 나왔다

인수의향서 19일까지 접수

1990년대 도널드 슈즈를 선보여 선풍적 인기를 끈 국내 토종 구두 브랜드인 무크(MOOK)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무크는 영업적자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으로 12억 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5월 최종 부도 처리됐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번 매각은 회생계획인가 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진되는 것이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무크의 매각 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매각 공고를 내고 오는 19일까지 인수의향서(LOI)와 비밀유지 확인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매각 방식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991년 설립된 무크는 오픈토토의 사내 벤처로 시작해 1990년대 일명 '도널드 슈즈'를 선보이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업계 최초 아웃렛에 진출해 인터넷 쇼핑몰 개시를 비롯해 다양한 유통망을 지난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인수합병(M&A)업계 관계자는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기업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업계 진입을 노리는 잠재 인수후보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IPO 코스닥 상장 中형성그룹 “글로벌 패밀리 엔터기업 도약”

완공로 시작 아동문화 전반 확대
2000만주 공모 8-9일 청약 진행

중국 완구·콘텐츠 전문기업 형성그룹(이하 형성)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전문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이만킷(사진) 형성 대표는 “형성이 주력으로 하는 아동문화 및 콘텐츠 사업은 다른 사업 분야보다 성장성이 뛰어나고 이용 대상도 광범위해 미래 전망이 매우 밝다”며 “이번 상장을 계기로 중국과 한국에서 형성그룹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국의 문화산업을 잇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설립된 형성은 지난 25년 동안 아동문화사업에 집중해 중국 푸젠(福建)성 최대 규모 완구·콘텐츠 전문기업이다. 회사는 설립 초기 완구 전문회사로 시작해서 현재 아동문화사업 전반과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 플라스틱 전통완구, 봉제완구, 애니메이션, 아동용품 등이 있으며 디즈니, 마텔, 피셔프라이스 등 글로벌 기업에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012억 원, 영업이익 392억 원, 당기순이익 285억 원을 기록했다. 형성은 기존 사업 외에도 IP(지식재산)



기반 라이선스 사업, 스마트 교육사업, 3D 애니메이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우수 IP 확보를 통한 OSMU(One Source

Multi Use)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등 문화·콘텐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국영방송 CCTV를 통해 론칭한 자체 브랜드 ‘재킷(Jazzit)’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형성은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3회 연속 올림픽 마스코트 제작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한국과의 사업 제휴도 확대하고 있다. 또 한국 상장 이전부터 한국에 니메이션 ‘젤락이2’에 제작 투자, 게임개발사 YJM엔터테인먼트 지분 투자, EBS MOU 체결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IP를 확보하고 있다.

형성의 총 상장예정 주식 수는 8073만5294주이며 그중 공모 주식 수는 2000만 주로, 주당 공모 희망가 밴드는 3400~5300원이다. 이날 3일과 4일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해 8일과 9일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장 예정일은 오는 18일로,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이다. 형성그룹은 이번 공모를 통해 총 680억~106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공모자금은 신규 IP 개발 및 확보, 스마트로이 생산 설비 등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주식투자 성공

부자아빠 주식학교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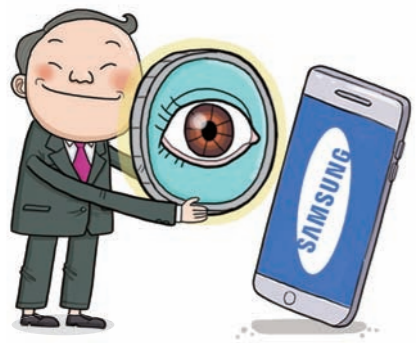
중소형주 축소하고 대형주를 담아라!

“투자에 실패하고 있다면 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고전에 답이 있다” /부자아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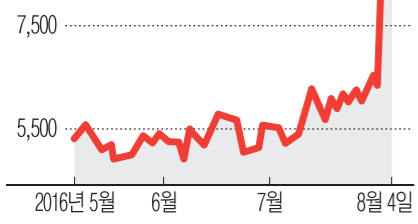
(주)모든국민은주주다



‘갤 노트7’ 흥채인식 렌즈 납품... 코렌 ‘시선 집중’



코렌 주가 추이
(단위: 원)



기술 직접개발... 단독 납품 최고수준 보안 솔루션 평가

삼성전자·LG이노텍 등 고객 카메라폰 렌즈 점유율 2위

삼성전자가 흥채인식 기능으로 보안성을 높인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를 공개한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 코렌이 흥채인식 렌즈를 유일 납품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코렌 측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재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에 흥채인식 기술의 렌즈를 납품하고 있다. 현재까지 흥채

인식 렌즈 납품사는 코렌이 유일하며 해당 기술은 코렌 측이 직접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 관계자는 “향후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해당 기술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은 코렌이 유일하다”며 “오늘 공개를 결정할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렌은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업체로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계약을 맺어 왔다. 이외에도 자화전자, 삼성전기, 파트론, 캄시스, 나무가, 라이트온, O-Film, 파워로직스, MC-NEX 등이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이다. LG전자는 물론 LG이노텍, COWELL, 아이엔텍 등이 있다.

동사는 특히 자체적으로 렌즈의 개발과 설계를 수행하고 있어 경쟁력을 갖는다. 삼성전기, LG전자와의 계약도 이러한 축적된 자체 기술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번 흥채인식 렌즈 역시 코렌 측이 개발해 독점 납품하고 있다.

이에 회사 측은 “삼성전자 및 LG전자 공급업체 선정에 따른 감점과 검증된 렌즈 설계와 공정 기술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과 거래선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카메라폰용 렌즈 모듈 시장점유율에서 코렌은 지난해 87억 원(22.69%)의 매출을 올리며 세코닉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편 삼성 스마트폰에 최초 적용된 흥

채인식 기술은 삼성 Knox(Knox)와 생체인식을 결합한 최고수준의 보안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흥채인식을 통해 웹 사이트 로그인이나 모바일 뱅킹 인증서비스 등이 가능한 ‘삼성패스’도 함께 선보이며 ‘삼성페이’ 또한 기존에 사용했던 지문인식처럼 흥채인식을 통해 인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하나, 신한, 우리은행이 제휴했다.

이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이번 갤럭시 노트7의 가장 큰 특징은 흥채인식의 적용이다”며 “스마트폰을 포함한 차세대 IT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보안이슈이며, 특히 사용자의 편리성을 극대화 금융과 IT의 융합인 핀테크에서는 매우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sun@

종목 돋보기

난로 팔던 파세코... 모기퇴치기로 여름에도 신바람

‘모스클린’ 매진 행렬... 생산 늘려 석유난로 판매로 하반기 실적 집중 신제품 인기로 매출 체질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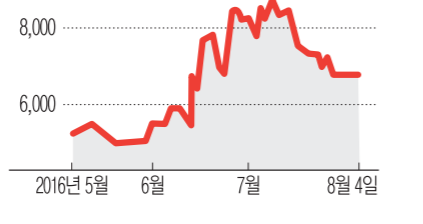
파세코가 올해 처음 선보인 모기퇴치기 ‘모스클린’과 ‘서클레이터(공기순환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클레이터는 준비한 물량을 모두 판매했고, 모스클린은 흡소핑 매진행렬이 이어지며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3일 파세코 관계자는 “모스클린은 6월에 방송이 끝나기 전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7월 역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지난달 12만 정도 흡소핑 판매를 했는데 대부분 완판했고, 이에 꾸준히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클레이터의 경우, 올해 준비한 물량을 이미 모두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파세코는 석유난로와 빌트인 가스레

파세코 주가 추이
(단위: 원)



인지기를 주로 판매하는 업체다. 이에 따라 상반기는 부진하고 하반기에 실적이 증가하는 ‘상저하고’ 업체로 잘 알려졌다. 하지만 여름 신제품들의 인기로 하반기 1년 내내 꾸준한 매출 상승이 이어지는 회사로 체질 개선할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모스클린’은 바이오레즈 청정기술을 활용한 기기다. 바이오레즈란 자외선 LED(발광다이오드)를 응용한 기술로, 자외선 지수가 형광등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것

이 회사의 설명이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전혀 없어서 유아와 임산부, 그리고 노약자들도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다.

또 모스클린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표준 기기와의 성능비교 실험에서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았다. 실험 결과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 숲모기는 최대 13배, 말라리아를 옮기는 얼룩날개모기는 최대 9배로 타 제품보다 모기유인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스클린은 서울반도체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에서 UV LED 기술 개발과 제품 제작을, 파세코가 제품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파세코는 1분기 매출액 136억 원, 영업손실 11억 원으로 다소 부진했으나, 신제품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송영록 기자 syr@

우리엠엔에스, 초미세먼지 막아줄 나노섬유 필터 출시

자연통풍 가능 ‘MNS 나노 방진망’

우리아이티가 계열회사인 우리엠엔에스는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나노섬유 필터 ‘MNS 나노 방진망’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엠엔에스 나노 방진망은 나노 단위의 섬유배열로 장문을 통한 자연통풍 중에도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방충망 구조에 나노섬유를 방사하고 황균 처리 후 이를 보호하는 메쉬(그물망)를 부착한 삼중(3-Layer)구

조로, 황사와 미세먼지를 비롯해 박테리아까지 차단할 수 있다.

우리엠엔에스는 한국원자력연구원(KIT)을 통해 공기청정 장치에 갖는 분진포집 효율에서 90% 이상 입자를 걸러내 기능을 인정받았다. 자외선 차단과 항균, 탈취 효과까지 입증했다.

또 제품의 공기통과 능력을 표시하는 통기도에서도 500cm를 만족하며, 기존 방충망 기능이 추가해 초미세먼지와 세균 번식 방지도 가능하다.

우리엠엔에스는 나노섬유 기술력을 이용해 이번에 출시한 방진망뿐만 아니라 공

기청정기, 에어컨, 마스크 필터 등 다양한 미세먼지 차단 제품 개발을 완료. 가정용 나노섬유 보습에 나선다는 목표다. 최근 생산시설을 월 아백오십만 평당 미터로 확충하며 가격경쟁력도 갖출 계획이다.

우리엠엔에스 관계자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대기 환경이 악화돼 특수 산업 분야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나노-필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건강에 위협이 되는 물질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으로 시장공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효성오앤비, 스리랑카에 유기질비료 독점 공급

효성오앤비가 스리랑카 국영비료회사와 유기질비료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효성오앤비는 스리랑카 현지법인인 효성랑카가 지난달 21일 스리랑카 국영비료회사인 락포호라(Lakpohora)와 유기질비료 2종 독점 계약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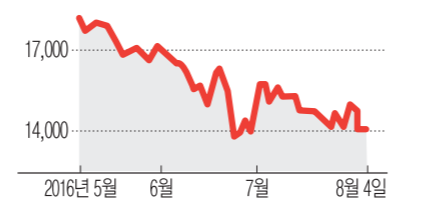
현지에서 판매될 제품 2종은 농업용 20kg와 흙가든용 2kg로 효성랑카 공장 생산되며 스리랑카 정부 보조 사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계약 내용은 연간 최소 6000톤 이상의

제품을 독점 계약하는 것이다. 회사 측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향후 6만톤 이상의 제품을 공급 목표로 효성랑카 제2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스리랑카 농업은 실린티로 유명한 차와 쌀, 코코넛, 고무나무 등이 대규모 경작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그동안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지하수와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많은 사람이 신장염으로 고통받고 있다.

스리랑카 국민의 건강과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스리랑카 대통령

효성오앤비 주가 추이
(단위: 원)



은 올해부터 ‘독소 없는 건강한 나라’라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유기질비료를 사용, 토양을 개량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첫 번째 정책으로 2016년부터 화학비료 보조를 중단하고 유기질비료에 대해 보조를 하기로 전환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엠지메드, 산전·후 유전자검사 신의료기술평가 첫 심의 완료

마이크로어레이로 분자 진단 “정부 추진 평가 간소화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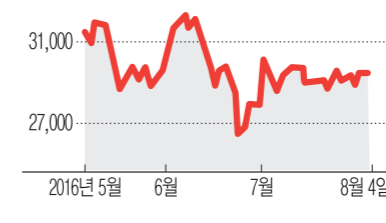
분자진단 전문기업인 엠지메드가 산전·후 유전자검사 신의료기술평가 심의를 완료했다.

엠지메드는 현재 시행 중인 PGS(Pre-implantation Genetic Screening), A-스캐닝(scanning), MG-Test, G-스캐닝(scanning) 등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한 산전·후 유전자 염색체 이상 진단검사에 대해 국내 최초로 한국보건과학연구원(NECA)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심의를 완료한 의료기술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마이크로어레이는 작은 유리 기판에 DNA를 집적해 질병 진단에 활용하는 분자진단 검사법이다.

엠지메드는 출산 관련 유전자검사에 특화된 분자진단 전문기업으로 해당 분야에서 국내 1위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기술성을 인정받아 2015년 11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 상장된 바 있다.

엠지메드는 국내 유전자검사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자체 생산하고 있는 마이크로어레이(BAC DNA Chip)를 통해 산전 태아 유전자검사인 MG-Test, 유산물 염색체 이상 검사인 A-스캐닝, 산후 유전자검사로

엠지메드 주가 추이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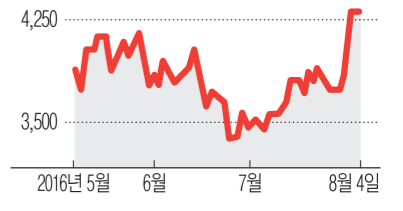
인 G-스캐닝, 난임 산모의 체외수정 시술시 수정란의 배아세포에 대한 착상전 염색체 선별 유전자검사인 PGS 등의 유전자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검사를 통해 산전·후에 필요한 각 단계의 다양한 임상 검체에 대해 다중중후군, 터너중후군, 클라인펠터중후군 등 다양한 종류의 염색체 수적·구조적 이상 질환을 진단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유전자검사가 신의료기술평가 심의를 완료하게 된 것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의료기술평가 규제 완화 및 평가절차 간소화 등의 바이오산업 활성화 정책이 큰 도움이 됐다”며 “이를 계기로 당사의 MG-Test, G-스캐닝, PGS 등 산전·후 유전자검사가 기존에 진입이 어려웠던 대형 대학병원 등에서 공식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엑셀 주가 추이
(단위: 원)



엑셀, 태국 광고시장 진출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엑셀이 신사업인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태국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시장에 진출한다.

엑셀은 빅데이터 BI-통계분석 솔루션 전문 기업인 아인소프트와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태국의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 진출한다고 4일 밝혔다.

엑셀은 아인소프트와 올해 11월에 문을 여는 태국 최대 규모의 한류 테마 복합 쇼핑몰인 SHOW DC몰 내부에 최첨단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지난달 7월 함께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이 사업에서 엑셀의 빅데이터 플랫폼 제품인 플라밍고를 주축으로 하는 기술력과 아인소프트가 가진 빅데이터 BI-통계분석 기술력을 적용하여 태국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시장을 정조준할 계획이다.

엑셀과 아인소프트는 태국 현지의 중견 광고 에이전시인 옥토퍼시(Octopus Inc.)와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의 광고 각축장이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향후 동남아시아까지 비즈니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약한 태국 방콕의 SHOW DC몰은 11월 오픈을 시작으로 치앙마이, 푸켓,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10개 주요 도시에 순차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엑셀과 아인소프트는 이 사업에 대한 세계 각지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계약 당사자인 아인소프트는 방콕의 SHOW DC몰 내의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계약만으로 년 100억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동반자인 엑셀도 아인소프트와 대등한 수익이 예상된다.

조종양 엑셀 대표는 “엑셀이 고객 참여형 첨단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광고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기반에는 그동안 연구개발을 진행한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이 튼튼히 자리 잡고 있다”며 “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서 엑셀은 향후 디지털 사이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핵심축인 소프트웨어 부문을 선도해 나갈 것이며 이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시장 진출의 가치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차바이오텍, 美 소렌토와 합작회사 설립

암 치료제 ‘CAR-NK’ 개발 나서

차바이오텍이 미국 항체신약 개발 전문회사인 나스닥 상장사인 ‘소렌토(Sorrento Therapeutics Inc.)’와 손잡고 차세대 항암면역치료제(CAR-NK) 개발에 나선다.

차바이오텍은 소렌토와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인 CAR-NK세포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는 합작투자회사(JV)를 국내에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CAR-NK치료제란 기존 암치료법 중 하나인 ACK(활성화된 자연 살해세포) 치료를 보완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에는 NK세포를 70% 이상 활성화한 ACK세포를 암환자에 투여했을 때 일부 암세포만 죽고 일부 암세포는 그대로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ACK세포에 암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유전자인 CAR(카메라릭 항원 수용체)를 결합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모든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엔 차바이오텍과 손잡은 소렌토는 암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공격하게 만드는 CAR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미국 최고의 회사로 나스닥 상장 회사다.

이번에 설립된 합작회사는 차바이오텍과 소렌토는 양사 간 미화 200만 달러씩 공동 투자하며, 차바이오텍이 51%의 지분을 가지며, 소렌토가 49%의 지분을 가지는 차바이오텍의 자회사로 편입 예정이다. 또 치료제가 개발되면 합작회사가 중화권을 제외한 국가에서 세포치료제의 글로벌 독점 권리를 갖게 된다. 향후 차세대 항암 치료제의 탄생은 물론, 차바이오텍은 미국 진출을 이룬 시 일 안에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힘내라! 대한민국!

땀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도전에 성적을 매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땀과 도전이
2016 리우 올림픽 대회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이겨 달라는 말 대신
우리 5천만 국민이 하나되어
소리 높여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더 큰 도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해내겠습니다 OK! SK



반도체/정유부문 공식 후원사

